



경찰연합신문 모바일 보기



www.police.go.kr



해양경찰청

오세훈, 김포 이어 구리시장 면담...‘메가 서울’ 논의 계속

구리시와도 공동연구반 구성...구리시장 “동반성장 잠재력”



오세훈 서울시장과 백경현 구리시장이 13일 오전 서울시장에서 구리시의 서울시 편입 문제 등에 대해 논의하기 앞서 악수하고 있다.

최근 정치권에서 ‘메가시티 서울’ 구상이 뜨거워 감자로 부상한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과 백경현 구리시장이 13일 백경현 구리시장과 만났다. 오 시장이 주변 도시의 서울 편입과 관련해 다른 지방자치단체장과 만난 것은 지난 6일 김병수 김포시장에 이어 두 번째다.

오 시장과 백 시장은 이날 오전 11시께 서울시장에서 약 30분간 면담했다. 앞서 백 시장은 지난 2일 기자회견을 열고 구리의 서울 편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백 시장은 면담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메가시티 서울로 구리시 편입과 관련해 30분간 의미 있고 뜻깊은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며 “구리시는 인구 19만명의 가장 작은 도시로 자족도시의 기능을 발휘하기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각종 개발을 통해 편익을 높일 수 있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백 시장은 면담에서 “구리시는 예전부터 개발제한구역, 상수원보호구역, 군사보호지역,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 등 중첩규제로

인해 도시 개발이 억제되면서 자족도시의 역할 수행에 많은 어려움이 따랐다”며 “구리시가 서울로 편입된다면 구리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의견을 오 시장에게 전했다.

또 “구리시가 서울로 편입되면 각종 지하철 연장 등 교통인프라가 향상돼 구리 시민의 편익이 증가하고 서울수도 구리시의 유희지에 각종 공공시설 등을 이전해 이전 부지를 복합개발할 수 있는 등 양 도시가 동반성장할 잠재력이 풍부하다”는 이점을 설명했다.

오 시장 백 시장에게 양 도시가 합동으로 연구반을 꾸려 정밀하고 객관적인 분석을 시행하고 그 결과를 시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자고 화답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김포시와 마찬가지로 구리시와 함께 편입에 대한 효과와 장단점 등을 심층 분석할 ‘구리시 서울 편입 공동연구반’을 구성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김포시를 비롯해 주변 도시의 서울 편입에 대한 통합 연구도 수행한다.

오 시장은 지난 6일 김포시장과 면담한

뒤 ‘김포시 서울 편입 공동연구반’을 구성하기로 합의한 데 이어 김포시뿐 아닌 서울과 인접한 수도권 도시들을 모두 아우르는 메가시티에 대한 연구를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당시 오 시장은 “분석을 하는 데는 적어도 한두 달 이상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며 “연말을 전후해서 상당히 진전된 분석 결과를 시민들께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오는 16일에는 김동연 경기도지사, 유정복 인천시장과 3차 회동을 열고 서울 편입 관련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하남, 광명시 등에서도 일부 주민을 중심으로 서울 편입 문제가 논의되고 있어

추후 다른 지자체장과 만날 가능성도 열려 있다.

서울시는 경기도 인접 지자체의 편입이 결정될 경우 보통교부세 불교부, 국고보조사업의 차등보조율 적용 등 재정적 불이익이 없도록 정부에 재정 중립성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을 건의할 계획이다.

오 시장은 “김포·구리시 등과 시작된 논의는 총선과 관계 없이 선거 후에도 계속 진행될 것”이라며 “서울 인근 지자체의 편입이 시민의 삶의 질뿐만 아니라 서울의 도시경쟁력과 대한민국의 국가경쟁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지속해서 연구하고 고민하면서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 정희수 기자

경찰, 1만6천명 동원해 수능일 교통·소음관리

경찰청은 16일 치러지는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시험장 주변 교통·소음관리와 안전활동을 위해 1만6천여명을 동원한다고 밝혔다.

장소별·활동별 동원 인력은 시험문제 출제본부 555명, 문답지 인쇄본부 108명, 문답지 보관장소 1천282명, 문답지 이송 5천165명, 시험장 2천634명, 체점본부 110명, 교통관리 6천427명이다.

문답지 이송 시 노선별로 순찰차 1대와 경찰관 2명을 지원한다. 문답지 보관 장소에는 경찰관 각 2명을 고정 배치하고 2시간마다 1회씩 112 연계 순찰을 병행한다.

시험 당일에는 수험생들이 집중되는 입실 시간대인 오전 6시 30분부터 8시 10분까지 시험장 정문에 경찰관 각 2

명을 고정 배치한다.

또 시험이 종료될 때까지 시험장 주변을 112 연계 순찰해 각종 불법사항에 대비한다.

시험장 반경 2km 이내 주요 이동로에는 교통경찰과 교통협력단체(모범운전자)를 최대한 배치해 수험생 차량이 몰려 발생할 수 있는 교통혼잡에 대비하고 수험생들이 차질 없이 시험장에 입실할 수 있도록 돕는다.

아울러 수험생들이 주변 소음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시험장 인근 집회 소음을 엄격하게 관리하는 한편 공사 현장이나 차량 경적 등 생활 소음 자제를 요청하는 등 소음 발생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 박정웅 기자

Photo News



‘박정희 사진전’ 찾은 여당 지도부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등 여당 지도부가 1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박정희 대통령 사진전’ 개막식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민주·한국노총 “노란봉투법” 대통령 거부권 행사는 헌법 무시



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고도 요청했다.

이들은 “대통령 거부권은 법률안이 위헌적이거나 법 집행이 불가능한 상황에서만 발휘될 수 있지만,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노조법 2·3조 개정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13일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개정안)을 조속히 공포해달라고 촉구했다.

양대 노총과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는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안이 국회 논의만 공전하는 사이에 너무 많은 노동자가 죽거나 극한의 투쟁을 해야 했다”며 “윤 대통령은 개정된 노조법을 하루라도 빨리 공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대통령이 노란봉투법에 재의

문제에 따라 노조법 2·3조 개정에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게 확인됐다”며 “노조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 자체가 헌법을 무시하는 행위”라고 말했다.

이들은 “대통령이 개정 노조법에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재벌들의 무책임을 옹호하는 것이며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말할 권리를 주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양대 노총은 11일에도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고 개정법 공포를 촉구했다.

/ 송원기 기자

변화의 중심
기회의 경기

대한민국 성장잠재력을 깨우다!

경기북부 특별자치도

시·군별 비전 공청회

10 OCT				
● 12 연천	● 20 동두천	● 25 구리	● 27 남양주	● 31 의정부
14:00 연천군청 대회의실	15:30 평생학습관 한울림공연장	14:00 구리시청 대강당	14:00 본청 2층 여유당	14:30 의정부시청 대강당
11 NOV				
● 01 양주	● 02 고양	● 03 포천	● 06 파주	● 15 가평
14:00 양주시청 대회의실	14:00 덕양구청 대회의실	14:00 포천시 여성회관	15:00 파주시청 대회의실	14:00 음악역 뮤직홀

한미, '맞춤형 억제전략' 10년만에 개정...북핵 고도화 반영

양국 국방장관, SCM 계기로 서명...北의 핵·WMD 사용 가능성 대비

한국과 미국이 접증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문서인 '맞춤형 억제전략'(TDS)을 10년 만에 개정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은 13일 서울에서 열린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개정된 TDS에 서명했다. TDS는 북한의 핵·대량살상무기(WMD) 위협을 억제하기 위한 한미 국방장관 간 전략문서다.

2013년 10월 서울에서 열린 SCM을 계기로 처음 작성됐는데, 이후 급속도로 고도화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이번 SCM 이전에 개정한다는 목표로 논의를 진행해왔다. TDS는 군사기밀이기 때문에 세부 내용이 공개되지 않는다.

다만 개정 TDS에는 북한의 핵·WMD



신원식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이 13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연병장에서 열린 제55차 한미안보협의회(SCM) 의장행사에 참석하고 있다.

사용 가능성에 대비해 미국의 핵 능력을 포함한 한미동맹의 모든 능력을 활용하는 방안이 반영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양국 정상은 지난 4월 '워싱턴 선

언'을 통해 '한미가 함께하는 확장억제'에 합의함에 따라 정보공유를 비롯해 기획과 실행 등 확장억제의 전략적 방향성이 개정 TDS에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한 소식통은 "기존 확장억제가 미국의 핵전력에 의존하고 있다면 한미 정상이 워싱턴 선언에서 합의한 '핵협의 그룹'(NCG) 가동에 따라 미국의 핵 작전에 대한 한국 측의 재래식 전력 지원을 위한 공동 기획과 실행이 이뤄질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실제 지난 7월에 열린 제1차 NCG 회의에선 미국이 핵 작전을 수행할 때 한국군의 재래식 전력 지원에 대한 양국 공동 기획 및 실행, 미국 전략자산 전개 확대 방안 등이 집중적으로 논의된 바 있다.

이번 SCM에선 NCG 운영의 구체화를 비롯해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 방안이 핵심 의제로 다뤄졌다. 한미 국방장관의 확장억제 관련 논의의 결과는 회의 후 발표되는 SCM 공동성명에 반영된다.

/ 송원기 기자



이상원 양형위원회 위원장이 올해 6월12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양형위원회 제125차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는 모습

스토킹범죄, 죄질 나쁘면 징역 3년까지 흉기 들면 최대 5년

대법 양형위 회의서 잠정 결정 내년 3~4월 확정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스토킹 범죄의 죄질이 나쁜 경우 범죄 유형에 따라 징역 3~5년까지 권고하기로 잠정 결정했다.

양형위는 10일 128차 전체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스토킹 범죄 양형기준안을 심의했다고 13일 밝혔다.

양형기준은 일선 판사들이 판결할 때 참고하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이다. 범행 경위와 결과, 상습성, 피해회복 여부 등 판단에 고려할 '양형 인자'를 규정하고 이에 따른 권고 형량 범위를 '감경', '기본', '가중'으로 나눠 제안한다.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를 벗어나 판결하려면 판결문에 사유를 기재해야 하므로 합리적 이유 없이 양형 기준을 위반할 수는 없다.

양형위는 일반 스토킹 범죄의 경우 감경 영역이면 징역 1~8개월, 벌금형을 선택할 시 100만원~1천만원에 제한했다. 기본 영역이면 징역 6개월~1년 또는 벌금 500만원~2천만원을, 가중 영역이면 징역 10개월~2년6개월을 권고하기로 했다.

흉기 등을 휴대한 스토킹 범죄는 감경 영역은 징역 1~10개월 또는 벌금 300만원~2천만원, 기본 영역은 징역 8개월~1년6개월, 가중 영역은 징역 1년~3년6개월을 권고하기로 했다.

아울러 형량 선택에 큰 영향력을 갖는 '특별 양형인자' 중 가중인자가 감경인자

보다 2개 이상 많으면 일반 스토킹 범죄는 징역 3년까지, 흉기휴대 스토킹 범죄는 징역 5년까지 권고하기로 했다. 이는 스토킹 범죄 처벌법이 정한 법정 최고형에 해당한다.

스토킹 범죄 처벌법에 따른 긴급응급 조치를 위반하면 최대 징역 1년까지, 잠정조치를 위반하면 최대 2년까지 권고하기로 했다.

양형위는 "흉기 등 휴대 스토킹 범죄는 중한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특수성 내지 위험성, 범죄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와 인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권고 형량 범위를 정했다"고 밝혔다.

이밖에 양형위는 다양한 범죄 유형에 두루 적용되는 양형 감경인자 중 하나인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에 대해서는 "일선 재판에서 너무 쉽게 유리한 양형 사유로 적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있어 그러한 지적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이에 관해 검토 중"이라며 "공탁법 개정안이 발의되고 있는 상황도 주시하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늘어가는 기술침해 범죄의 심각성을 고려해 '지식재산권 범죄'의 범죄군 명칭을 '지식재산·기술침해 범죄'로 수정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어떤 요소를 양형 인자로 반영할지, 집행유예의 기준은 무엇으로 할지에 대해서는 내년 1월에 심의할 예정이다. 최종 양형기준은 공청회 등을 거쳐 내년 3~4월에 정해진다.

/ 이진주 기자

노숙자 명의로 법인통장 만들어 범죄조직에 넘긴 일당 32명 체포

해당 계좌로 오고간 금액만 1조8천억원...범죄단체조직죄 적용



지난달 수원 자택에서 조직원 체포하는 경찰

노숙자 등의 명의로 유명법인을 만든 뒤 법인 통장 계좌를 범죄조직에게 넘기고 사용료를 챙겨온 '대포통장' 조직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범죄단체조직,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30대 총책 A씨 등 32명을 검거하고, 이 중 비슷한 범죄로 이미 실형을 선고받아 수감 중인 A씨 등 9명

에 더해 조직 간부 20대 B씨 등 2명을 추가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 등은 2020년 9월부터 최근까지 경기도와 대전, 대구 등의 노숙자 22명에게 명의를 넘겨받아 유명 법인 38개를 만든 뒤 법인계좌 125개를 개설해 불법 도박사이트와 전화금융사기 등 범죄 조직에 제공하고 사용료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동네 선후배들이 점조직처럼 모여 단체를 꾸린 이들은 4~5명씩으로 구성된 '통장개설팀'과 'A/S 팀'에 배정돼 전국 각지로 나뉘어져 활동했다.

통장개설팀은 주거가 확실치 않은 노숙자나 신용불량자에게 접근해 100만~200만원을 주고 인감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넘겨받아 법인을 설립하고 통장을 개설했다.

A/S팀은 법인 서류를 관리하고, 만들어진 계좌들의 금전 흐름을 관리하는 역할을 했다. 범죄조직들에 통장을 넘기는 역할은 대부분 A씨가 도맡아 진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월 80만~200만원을 받고 국내외의 도박사이트 등에 계좌를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기간 해당 계좌를 거친 입출금액은 모두 1조8천200억원에 달한다.

장기간 사용해 추적 가능성이 높아진 계좌는 중국적으로 개당 250만~300만원에 전화금융사기 조직으로 넘어갔다.

이들은 계좌 중 54개를 통해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입금을 받은 뒤 나머지 계좌로 돈을 분산해 추적이 어렵게 세탁하는 업무까지 도맡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청 데이터베이스 조회 결과 이들이 넘긴 계좌를 통해 발생한 전화금융사기 피해자는 101명, 피해액은 68억여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3월 관련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금융기관에 제출된 법인 관련 서류를 토대로 등기 대상자들의 금융기록을 조사한 끝에 이들을 차례로 검거했다.

조직원들은 A씨로부터 월 300만원가량의 임금과 개설된 통장 1개당 10만원 남짓의 인센티브를 받고 범행에 가담했으며, 받은 돈은 생활비와 유휴비 등으로 람진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2년여간 사용료 등으로 10여억원을 챙긴 것으로 추정되나, 체포될 당시 계좌나 자택 등에 보유한 현금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유휴비 등으로 모두 썼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 김윤호 기자

대한민국 으랏차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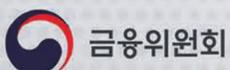
칙

캠코와 국민이 함께 위기를 극복하겠습니다

도전하는 기업에게 **기회 도약!** 부채로 힘든 소상공인에게 **희망 인착!**

활용도 낮은 공공자산엔 **가치 장책!** 함께하는 **따뜻한 금융** 힘 모아 돕겠습니다.

국민에 안정을 기업에 활력을 국가자산에 가치를 더하는 리딩 플랫폼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홈페이지 www.kamco.or.kr 문의 1588-3570



與, 탄핵안 재추진에 권한쟁의심판 청구...“21세기판 사사오입”

野김기현 “야바위 판에나 있을 꿈수...野, 개딸 아바타처럼 행동”

국민의힘은 13일 더불어민주당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손준성·이정섭 감사의 탄핵소추안을 철저히 재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전주혜 당 법률지원단장, 정경희 원내부대표는 이날 오전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청구서와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 111명 전원이 청구인으로 이름을 올렸으며, 피청구인은 민주당의 탄핵안 철회를 결재했던 김진표 국회의장이다.

이들은 청구서에서 “김 의장이 탄핵소추안 철회를 수리한 것이 국민의힘 의원들의 분회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며 “철회 수리는 무효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가처분 신청서에선 탄핵소추안 철회 수리의 효력을 정지하고, 정기국회 기간 동일한 탄핵안의 발의 접수 및 분회의 보



국민의힘 전주혜 원내대변인과 정경희 원내부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민원실에서 권한쟁의심판청구 및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하고 있다.

고·상정·표결을 금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날 30일 분회의 전 가처분 신청이 인용될 경우 민주당의 탄핵안 추진에는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지난 9일 이동관 위원장과 감사 2명의 탄핵안을 발의했고, 이는 당일

분회의에 보고됐지만 민주당은 하루 만에 이를 철회했다. 이후 탄핵안 재발의를 추진, 이날 30일 분회의에 보고되고 다음 달 1일 분회의에서 표결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당시 국회 사무처는 분회의에 보고된 탄핵안이 정식 의제로 논의되지 않

았기 때문에 철회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같은 민주당의 탄핵 재추진에 대해 “시장통 야바위판에나 있을 법한 꿈수를 민주당이 스스로 없애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갈수록 ‘개딸’(강성 지지층) 아바타처럼 행동하는 민주당이 참으로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윤재욱 원내대표도 회의에서 “민주당이 국회 사무처와 짝짜미가 돼 탄핵안 철회를 처리한 것은 국회법 근간인 ‘일사부재의’ 원칙을 뒤흔드는 의회 폭거”라며 “21세기판 사사오입”이라고 비판했다.

이승만 정부 시절 ‘사사오입 개헌’을 거론하며 절차적 부당성이 있다고 주장한 것이다.

조수진 최고위원은 “법을 만드는 국회에서 국회의장과 국회 사무총장이 비법과 불법의 길을 터준 셈”이라고 지적했다.

/ 안병호 기자



‘마약 투약 혐의’ 지드레곤 경찰 출석

경찰, 이선균·지디 마약수사 난항에도 “무리한 수사 아냐”

경찰이 배우 이선균(48)씨와 가수 지드레곤(35·본명 권지용)의 마약 투약 혐의 수사를 명확한 증거 없이 무리하게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다소 무리한 판단”이라고 반박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 관계자는 13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관련 질문을 받아 “마약범죄 수사는 국립과학수사원 감정 결과뿐 아니라 관련자 진술, 포렌식 자료 등을 종합해 혐의 유무를 판단한다”며 “현재까지 (마약 간이시험 검사) 음성

성이 나왔다고 해서 무리한 수사라고 단정하는 것은 다소 무리한 판단”이라고 말했다. 이어 “명백한 증거를 확보하기 전인 입건 전 조사(내사) 단계에 해상 사실이 알려져 수사가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계속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명확한 물증 없이 진술만 가지고 수사에 착수한 게 아니냐”는 지적에 “맞다”면서도 “수사 대상자가 다른 사

람 범죄에 대해 진술할 때 확인하지 않을 수 있으니 입건 전 조사를 한 것인데 그 내용이 알려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저희는 할 수 있는 것들을 차근차근히 해나가는 단계”라고 덧붙였다. 현재 인천경찰청이 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나 내사 중인 인물은 이씨와 권씨를 포함해 모두 10명이다.

이 중 이씨, 권씨와 마약을 유통한 혐의를 받는 유흥업소 실장 A(29·여)씨 등 5명은 형사 입건됐고 5명은 입건 전 조사 단계다.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42)씨의 전 연인인 정전조(27)씨 사기 혐의를 수사하는 서울 송파경찰서가 현재 병합해 처리하는 관련 사건은 총 17건으로 파악됐다.

이 중 남씨가 관계된 건은 전씨로부터 11억원대 사기를 당한 피해자가 공범으로 함께 고소한 건과 김민석 서울 강서구 의회 의원이 낸 진정 1건이 있다.

/ 고희우 기자

검찰, ‘도도맘에 허위 고소 종용’ 강용석 징역 1년 구형

강용석 “관대한 처벌 부탁드립니다”...내달 6일 선고

검찰이 유명 블로거였던 ‘도도맘’ 김미나씨에게 허위 고소를 종용한 혐의로 강용석 변호사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준구 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강 변호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사는 “피고인은 변호사 신분으로서 직업윤리를 저버리고 사적 욕심을 쫓기기 위해 무고를 교사한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고 말했다.

강 변호사는 “존경하는 재판장님, 관대한 처벌 부탁드립니다”고 짧게 말했다. 그의 변호인은 이어 “변호사로서 면밀히 살펴야 할 점을 살피지 못한 점을 뒤늦게 깨닫고 윤리를 제대로 지키지 못한 점, 한때 눈이 멀어 불륜에 빠진 점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제반 사황을 모두 살펴 선처해 달라”고 덧붙였다.

또 “김미나씨가 A씨와 오랜 경제적 지원을 받아왔던 관계를 정리하면서 치료비와 위자료로 상당한 금액을 받았던 사실관계



를 제대로 말했다면 특수상해를 넘어 강간상해로 고소하게끔 했을지 과연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 배운정 기자

이종석 “대통령과 친소관계, 사법부 독립에 영향 없게 하겠다”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지명된 이종석 헌법재판관이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는 윤석열 대통령과의 친분과 관련해 “대통령과의 친소관계가 사법부 독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임무를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전

이 후보자는 보수적 성향이라는 평가에 대해 “오직 헌법과 법률, 법관의 객관적 양심에 따라 재판에 임했다”고 겸손히 말할 수 있으며 앞으로도 그와 같은 자세로 재판에 임할 것”이라고 원론적으로

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다운계약서가 실제로 작성됐는지 여부가 불명하다”면서도 “만약 작성됐다면 세심히 확인하지 못한 불찰이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 후보자의 위장전입과 다운계약서 작성 의혹은 2018년 9월 이 후보자의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 당시에도 거론된 바 있다.

이 후보자는 동성 결혼 합법화에 대해서는 “동성애가 성적 자기결정권이나 생활의 자유의 영역에 속한다고 하더라도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을 것”이라며 “혼인과 가족 제도의 건전한 유지 발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국민적 합의를 통해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가짜뉴스 심의 기능을 방송통신위원회가 강화하려는 것을 두고서는 “구체적 내

“대통령 국정운영 고려할 사항 아냐...정기적 사적 만남 없다”

‘검사 탄핵’엔 “현재 심리 중이다” 말 아껴...위장전입은 사과

날 국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 윤 대통령과의 관계를 ‘서울대 법과대학 79학번 동기’로 짧게 정의하며 이같이 답했다.

그는 “윤 대통령과 정기적으로 사적인 만남을 가지지 않는다”며 “후보자 지명 전 윤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연락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부연했다.

대통령과 사법부의 관계를 묻는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 질의에는 “사법부는 권력분립의 원칙과 사법부 독립 원칙에 따라 본연의 책무인 재판에 충실함으로써 소임을 다하면 되는 것”이라며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뒷받침해야 한다거나 하는 것은 고려할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답했다. 최근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사 탄핵’에 대해서는 “현재 심리 중인 사건에 대해 구체적인 의견을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을 양해해달라”며 말을 아꼈다.

과거 이 후보자 본인이 3차례, 배우자가 2차례 위장전입을 한 것에 대해서는 “부동산 투기 목적의 위장전입은 한 바 없다”면서도 “이유를 불문하고 부적절한 행위라고 인식하고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1982년과 1988년, 1993년, 배우자는 1993년과 1996년 각각 위장전입을 했다.

아파트 거래 시 다운계약서를 작성했

음을 알지 못한다”며 “표현에 대한 반박을 통한 시정 가능성을 배제하는 사전적 규제나 지나친 위축 효과를 초래하는 형사처벌은 헌법상 정당화하기 어렵다”고 원론적으로 답했다.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한 ‘가석방 없는 중신형’에는 “실효성이나 국민의 법 감성, 헌법적 허용성 여부 등에 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고 했다.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와 관련해서는 “원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사면제도는 국민통합이라는 제도의 취지에 맞게 보충적·예외적으로 활용되면서 사법부 역할과 조화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 윤희정 기자

금융의 모든 순간 NH농협금융

퇴직금, 불릴 줄 아는 사람은 NH투자증권 IRP

퇴직금은 키우고 세금은 줄이고, 퇴직연금은 NH투자증권입니다

투자, 문화가 있다

NH투자증권

[투자 유의사항] *투자자는 금융상품에 대하여 증권사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들을 권리가 있으며, 기인 전 상품설명서, (주)NH투자증권, 집합투자계약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금융투자상품은 자산가격 변동, 환율 변동, 신용등급 하락 등에 따라 투자원금의 손실(0~100%)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연금저축 계약기간 만료 전 중도해지하거나 계약기간 종료 후 연금 이외의 형태로 수령하는 경우 세액공제 받은 납입원금 및 수익에 대해 기소득세(6.5%) 세율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과세 기준 및 과세 방법은 향후 세법개정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DC/IRP는 예금보유대상 금융투자상품으로 운용되는 적립금에 한하여 예금사보유법에 따라 예금우대공제(이자) 보충이 가능하며 다른 예금보유 대상 금융투자상품과는 별도로 1인당 최고 5천만원 이하, 5천만원 이상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단, 2개이상의 연금저축에 가입한 경우 합하여 5천만원까지 보호합니다. *QV IRP에서는 퇴직금에 대한 문종/자산관리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연후납, 상세 수수료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ETF/리츠 매매수수료는 발생하지 않으나, 수수료가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ETF/리츠 별 상세, 상세내용은 각 운용사 홈페이지 등 참조) *한국금융투자협회 심사필지 제23-01894호(2023.05.25~2024.05.24)

윤재옥 “野 ‘김건희 수사’ 검사 좌표찍기, 中 흥위병식 공격”

“쌍특검으로 선거판 흔들려는 예비 공작...오만한 힘 자랑”



13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재옥 원내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13일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관련 수사를 진행한 검사의 실명을 공개한 데 대해 “반헌법적이고 반민주적인 검사 좌표 찍기”라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김건희 여사의 오빠를 수사하던 검사의 이름과 사진을 공표하더니 어제는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을 수사하는 검사 이름과 사진을 공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21세기 대한민국의 제1야당이 1960년대 중국의 흥위병식 공격을 연이어 부추기고 있

는 사실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최근 모습은 극한 정쟁을 향해 달리는 무한 폭주 기관차와 다를 바 없다”며 “강서구 정장 보궐선거 후 민생 정치로 전환하는 모습을 보이는 척하더니 어느새 승리에 취해 거야의 오만한 힘자랑을 연일 거듭한다”고 지적했다.

윤 원내대표는 “노란봉투법·방송3법의 일방 통과, 이 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이재명 대표 수사 검사 탄핵에 이어 총선을 코 앞에 두고 소위 쌍특검(대장동 ‘50억 클럽’ 특검·김건희 여사 특검)으로 선거판을 뒤 흔들기 위한 예비 공작으로 검사 좌표 찍기에 나선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같은 민주당의 행태를 “선거에 이기기 위해서라면 헌법을 어기든 민주주의를 파괴하든 무슨 일든 벌이겠다는 태세”라고 꼬집었다. 이어 “민주당이 민생을 위한 여야 협치에서 벗어나 강성 지지층만 바라보는 정치를 재개한다면 머지않아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 송영위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3일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하고 있다.

이재명 “거부권 행사 정치 그만하고 방송법 즉각 수용해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3일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언론탄압 정권, 거부권, 말 따로 행동 따로 정권의 오명을 씻으려면 방송법을 즉각 수용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 매서운 심판 앞에서 달라지겠다고 해놓고서 뒤에선 거부권을 행사하는 말 따로 행동 따로 이런 정치를 이제 그만 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대선) 후보 시절에 언론 자유가 민주주의의 사회의 기본이라고 말한 대통령이 이제 와서 흑역사라도 방송 3법 입법을 거부한다면 언론 자유 신봉자라고 주장하며 언론 통제법, 언론인 숙청에 나선 과거 독재 정부와 다를 게 없다”고 주장했다.

이더 “뉴욕타임스가 윤석열 대통령의 언론 장악에 대한 열의는 한국의 군사독재 시절을 연상시킨다는 보도를 했다”며 “검찰이 정권에 비판적인 언론을 검박하

고 수사 대상으로 삼자 이를 비판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가 통과시킨 방송 3법 공포는 그야말로 국제적 망신거리가 된 윤석열 정권의 그릇된 언론관을 바로 잡고 언론 자유를 회복할 마지막 기회”라며 “민심도 거부하고, 국민도 거부하고, 국회도 거부하고, 거부권도 남발하고,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도 안 된 인사들을 마구 임명하고, 결국 거부 정치를 이제 그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또 “윤석열 정부의 ‘묻지마식’ 건전재정 고집 때문에 지방정부의 재정이 파탄 나게 생겼다”며 “현재처럼 지방 교부세와 교부금이 대대적으로 쪼그라들 경우 지방정부 살림은 그야말로 파탄이 날 것이고, 국민 삶도 매우 어려운 지경에 처하게 될 것 같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은 조속하게 지방 정부 책임자들과 회의를 열든지 해서 당면한 재정 문제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한정수 기자

유선전화로만 실시한 선거여론조사, 내달 1일부터 공표 금지

여심위 “특정 정당·후보자에 유·불리한 조사 시도 차단”

무선전화 응답비율 60%→70% 전화면접·ARS 방식 고지 의무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여심위)는 다음 달 1일부터 선거여론조사에 무선전화 조사 사용을 의무화하도록 한 개정 선거여론조사기준이 실시된다고 13일 밝혔다.

개정 기준에는 무선전화 조사 없이 유

선전화 100%로 실시한 선거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할 수 없다는 규제 조항이 신설됐다.

여심위는 무선전화가 보편화된 상황임에도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유·불리한 조사 결과를 얻고자 하는 시도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여심위 관계자는 유선전화 사용자 특성상 고령층 응답자가 많아 표본이 보수

층에 쏠리는 현상이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유선전화 보급률과 지역별 편차, 무선전화 조사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권고 무선전화 응답 비율을 기존 60%에서 70%로 상향했다.

개정 기준은 선거여론조사결과를 공표하거나 보도할 때, 조사방법이 전화 면접인지, 자동응답(ARS) 방식인지를 의무적으로 알리도록 했다.

이외에도 선거여론조사결과를 공표할 때 조사에 사용된 전체 질문지도 공개하도록 하고, 피조사자 선정·결과 분석 시 60대와 ‘70세 이상’을 구분해 등록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여심위 측은 “이번 개정으로 조사기관에는 여론조사의 객관성을 제고하고, 유권자에게 정보공개를 통한 알권리 보장을 위해 여론조사의 신뢰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선거 여론조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차현준 기자

이준석 측근 “李에 알맞은 공천권 주는 輿비대위원장 제안도”

“이 대표가 당권 달라고 이라는 것으로 여기나...더 나쁜 것”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와 ‘천아용인(천하람 허은아 김용태 이기인)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 측근인 이기인 경기도의원은 13일 “이 전 대표에게 공천권을 할애한 당 비상대책위나 선거대책위 위원장직 제안을 (당이)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3·8 전당대회에 나섰던 천아준석계 후보 4인방인 ‘천아용인’ 가운데 한명인 이 의원은 이날 BBS 라디오 ‘전

영신의 아침저녁’에 나와 “용산 대통령실 내지는 국민의힘 지도부의 측근이나 주변 인물 통해서 제안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어떻게 보면 그게 더 나쁜 것”이라며 “지금 이 대표나 당의 개혁을 말하는 사람들이 비대위원장이나 선대위원장이나 이런 한낱 알맞은 당권과 권

한을 달라고 이라는 것 같이 여기는 것인데 그게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전 대표한테는 오히려 아무것도 주지 않아도 좋다”며 “다만 국민들한테 저평가되고 있는 원인을 찾아서 진단하고 반성하는 것이 옳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 전 대표가 추진하는 신당 창당에 대해서는 “가능성을 따진다면 60% 정도 됐다고 봐도 된다”며 “정부 국정운영 기초 변화를 기다리면서도 사실상 물밑 작업을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소위 말해서 국민의힘 텃밭으로 분류되고 사실 공천을 받으면 당선이 수월한 지역에서 공천을 걱정하지 않는 입장의 국회의원들이 연락이 와서 이 대표가 얘기하는 문제 제기에 상당히 공감하고 있다”면서 “주류의 입장을 대변하는 의원들이 연락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 오정훈 기자

‘고발사주’ 손준성 “선고 목전에 탄핵 추진, 의도가 뭔가”

재판 출석하며 반발...“정치적 공세, 의연히 대처하겠다”

불어민주당의 검사 탄핵 소추 대상에 오른 손준성 검사장이 “2년이 넘도록 전혀 언급이 없다가 판결 선고를 목전에 둔 시점에 탄핵을 추진하는 의도가 무엇인지 묻고 싶다”고 반발했다.

손 검사장은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고발 사주’ 의혹 사건 재판에 출석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손 검사장은 “그동안 성실하게 수사과 재판에 임해왔다”며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그 어떤 정치적 공세가 있더라도



손준성 검사장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에 성실히, 그리고 의연히 대처하겠다”고 덧붙였다.

‘고발 사주’는 검찰이 2020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당시 여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에 대한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이다. 공수처는 작년 5월 손 검사장을 기소했고 손 검사장은 혐의를 부인해왔다.

재판부는 이날 중 손 검사장에 대한 재판 절차를 종결하고 내년 1월 중 선고하는 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민주당은 지난 9일 손 검사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가 이튿날 본회의가 불발되자 철회했다. 민주당은 탄핵안을 재발의해 오는 30일 본회의에 보고하고 12월 1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 강희찬 기자

SAMSUNG

Galaxy Z Flip5

자세한 제품을 알아보실 때는 삼성닷컴에서 확인하세요

World EXPO 2030 BUSAN, KOREA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응원합니다

samsung.com

*올해는 오토가 움직이는 ‘전도’가 ‘기동’이며, 해당 방향을 벗어난 경우 임의히 종료되거나 정지될 수 있습니다.

최태원 “노소영, 십수년간 남남...재산분할 위해 논란 일으켜”

노소영 언론 인터뷰에 입장문...대리인 “당사자 문제 제3자에 전가”

최태원(63) SK그룹 회장이 12일 이혼 소송 중인 노소영(62) 아트센터 나비 관장을 겨냥해 “마지막 남은 재산분할 재판에서 유리한 결론을 얻기 위해 일방적인 입장을 언론에 이야기해 논란을 일으키고 있어 당혹스럽다”고 비판했다.

최 회장은 이날 소송 대리인을 통해 공개한 입장문에서 “노 관장과의 혼인관계는 새로운 사람을 만나기 훨씬 이전에 이미 완전히 파탄이 나 있었고, 십수 년 동안 형식적으로만 부부였을 뿐 서로 불신만 남아있는 상태에서 남남으로 지내 오다가 현재 쌍방이 모두 이혼을 원한다는 정구를 해 1심에서 이혼하라는 판결이 이뤄진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최 회장은 이어 “개인적인 일로 사회적 논란을 일으키는 게 부적절하고, 항소심 재판부의 당부도 있어 자세히 말씀드리지 못하는 점을 양해해달라”며 “여러



최태원 노소영 이혼 소송 (CG)

현안으로 위중한 상황에서 논란을 야기할 점 국민들께 송구하다”고 덧붙였다.

최 회장 측 대리인도 “불과 이틀 전에 항소심 재판부가 ‘여론몰이식 언론플레이를 자제하라’고 당부했음에도 노 관장이 이를 무시하고 자신의 일방적인 주장을

기자회견과 인터뷰로 밝혔다”며 “법정에서 다루고 있는 당사자 간 문제를 고의적으로 제3자에게 전가해 세간의 증오를 유도하려는 행위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대리인은 최 회장이 현재 외국 출장 중

으로, 노 관장의 최근 언론 보도 내용과 관련해 이런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노 관장이 전달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최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을 두고 “남의 가정을 깬 사람은 벌을 받아야 한다”고 발언한 것 등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노 관장은 지난 9일에도 서울고법 가사 2부(김시철 강상욱 이동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혼 소송 항소심 첫 변론준비 기일에 출석한 뒤 취재진과 만나 “30여년간의 결혼 생활이 이렇게 막을 내려 참담하다”며 “가장의 소중한 가치가 법에 의해 지켜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1심은 노 관장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고,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로 1억원, 재산 분할로 현금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으나 양측 모두 불복해 항소했다. / 송진영 기자



해경에 압수된 명품 위조품들

정품시가 1조원 넘지만 해경에 압수된 명품 짝퉁의 운명은

최근 정품 시가로만 1조5천억원어치에 이르는 명품 ‘짝퉁’을 밀수한 조직이 해양경찰에 적발되면서 압수 물품의 향후 처리 방안에도 관심이 쏠린다.

12일 인천해양경찰서에 따르면 해경은 최근 관세와 상표법 위반 혐의로 국내 밀수 총액 A(51)씨 등 17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이 중국에서 국내로 들여온 위조품은 에르메스·루이비통·샤넬·버버리·구찌 등 명품 짝퉁 5만5천810쌍자로 정품 시가만 1조5천억원에 달한다. 이는 해경 단일 사건 중 최대 규모의 밀수액이다.

이들 제품 중 상당량은 온라인 쇼핑몰이나 오픈마켓을 통해 정품이 아닌 레플리카(가품)로 유통됐지만 657쌍자 4만721점은 해경에 압수됐다.

해경은 가방·의류·향수 등 압수품을 사무실 3칸 정도의 유휴 공간과 창고형 컨테이너 2개를 활용해 보관하고 있다.

압수물은 통상 재판에서 유죄가 인정돼 몰수 판결이 나면 검찰이 처분 지휘를 하게 된다. 검찰 압수물 사무규칙에 따르면 몰수물이 경제적 가치를 지닌 ‘유가물’인 경우에는 공매에 부쳐 판매 수입을 국고에 납입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에 해경이 압수한 물품은 모두 상표법을 어긴 위조품이기 때문에 전부 소각 등의 방식으로 폐기될 가능성이 크다. 형사소송법은 법령상 생산·제조·소지·유통이 금지된 압수물로서 부패우려가 있거나 보관이 어려운 압수물은

권한 있는 자의 동의를 받아 폐기할 수 있도록 했다.

자원 낭비와 환경 오염 등을 우려해 경찰이 상표권자의 동의를 얻어 압수 위조품의 상표를 떼고 사회복지단체에 기증하는 사례도 종종 있긴 하다.

실제 앞서 2010년 부산경찰청은 원래 상표권자의 기증 동의와 검찰 승인을 얻어 짝퉁 운동화 압수품 200켤레를 사회복지단체에 무상기증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번 압수품은 해외 명품 브랜드여서 이들 기업으로부터 압수품 기증 동의를 얻기는 사실상 어렵다.

해경 관계자는 “이번 압수물들은 유명 브랜드 위조품이어서 재활용이나 사용이 불가능할 걸로 보인다”며 “이후 검사 지휘를 받아 폐기업체에 의뢰하면 용광로에서 소각하는 방식으로 처분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도 “수사 중인 상황이라 아직 결정되지는 않았지만 통상적인 경우 이 같은 압수물은 모두 폐기 처분한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항공사 하청업체 직원이 인천국제공항의 승객들 위탁 수하물에서 몰래 훔쳤다가 경찰에 적발·압수된 역대 금액은 주인이 있어 다른 방식으로 처리될 예정이다.

경찰에 따르면 1억5천만원어치의 압수물 중 위조품은 폐기되고, 진품들은 소유주를 찾는 경찰의 공고 절차를 거친 뒤에도 주인을 찾지 못하면 공매에 부쳐진다. / 한준우 기자

잠실역 나타난 스파이더맨...노숙인 폭행 위협 말리고 사라졌다 시민 목격담 이어져...“영어로 사진 요청하자 ‘아유, 그럼요’ 답해”



노숙인 위협 제지하는 ‘스파이더맨’ 시민

춤을 추는 듯한 모습을 연출하자 주변 시민들이 웃음을 터뜨리는 장면도 나온다.

역무원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노숙인을 강제 퇴거 시켰다.

서울교통공사 관계자는 12일 연합뉴스 통화에서 “퇴거 조치가 마무리된 뒤 스파이더맨 시민은 많았으나 사라졌다”며 “시민의 신원은 파악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11일 밤부터 소셜미디어(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잠실역에 스파이더맨이 나타났다’는 내용의 사진과 글들이 잇따랐다.

“잠실역에서 스파이더맨을 만난 친구가 당황해서 영어로 사진 찍어도 되겠냐고 물어봤더니 구수하게 ‘아유, 그럼요’라고 답했다더라”, “잠실역에서 몇 번 마주쳤는데 볼 때마다 아이들에게 인사해주셨다”, “서울에도 히어로(영웅)가 등장한 것이냐” 등의 반응도 올라왔다.

이날 새벽 1시30분께 자신이 ‘스파이더맨’이었다고 밝힌 한 이용자는 X(옛 트위터)에 “주말에 (스파이더맨 복장을 하고) 아이들이 많이 오는 잠실에 자주 가서 사진도 찍어주고 좋은 추억을 만들어주고 있다”며 “경찰이 오기까지 10여 분 걸린다고 해서 더 큰 싸움으로 번지지 않게 말했다”고 적었다.

/ 정효주 기자

경찰, 1달간 ‘상습 음주운전’ 특별수사...162명 차량 압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7~10월 4개월간 상습 음주 운전자를 특별수사한 결과 피의자 162명에게서 차량 162대를 압수했다고 12일 밝혔다. 영장에 의한 압수가 29대, 임의제출 형식이 133대다.

경찰은 ‘검·경 합동 음주운전 근절 대책’에 따라 음주 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내거나 상습적으로 음주 운전을 하면 차량을 압수·몰수하고 있다. 압수한 차량은 법원에서 최종 몰수 판결을 받으면 공매 절차 등을 거쳐 매각 대금이 국고에 귀속된다. 차량을 압수당한 피의자 162명 중 127명(78.4%)은 면허 취소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이였다. 이 가운데 27명(16.7%)은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의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음주 전력이 3회 이상인 피의자는 82명(50.6%)이었고 초범은 28명(17.3%)에 불과했다. 경찰은 이들 외에도 특별수사 기간 음주 운전자 1천123명을 위험운전치사상 혐의로 검거했다.

/ 노승만 기자

한수원이 가장 잘 하는 일, 바로 에너지 채용입니다

원자력, 태양광부터 풍력, 수력, 연료전지까지 - 깨끗하고 효율적인 에너지가 될 수 있다면 그 어떤 무엇과도 함께 해왔습니다. 앞으로 또 어떤 에너지가 가능해질까요? 한국수력원자력이 만들어가는 새로운 에너지를 기대하세요. **종합 에너지기업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수력원자력

원자력, 태양광부터 풍력, 수력, 연료전지까지 - 깨끗하고 효율적인 에너지가 될 수 있다면 그 어떤 무엇과도 함께 해왔습니다. 앞으로 또 어떤 에너지가 가능해질까요? 한국수력원자력이 만들어가는 새로운 에너지를 기대하세요. **종합 에너지기업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수력원자력

| 한수원, 깨끗한 에너지로 미세먼지 및 온실가스 저감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

마음 급한 바이든, NSC 중동 참모 이스라엘에 추가 급파

CIA국장·블링컨 이어 맥거크 중동 조정관 파견...가자전쟁·인질협상 논의 전망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중동 담당 백악관 참모를 이스라엘과 카타르 등에 보내 가자지구 전쟁과 인질협상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11일(현지시간) 미국 약시우스가 보도했다.



바이든 美 대통령

약시우스는 이스라엘과 미국 당국자 4명을 인용해 브렛 맥거크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중동·북아프리카 조정관이 이번 주 이스라엘과 카타르 등 여러 중동 국가를 방문한다고 전했다.

맥거크 조정관은 우선 오는 14일 이스라엘을 방문해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와 요아브 갈란트 국방장관, 정보기관 지도자 등과 만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스라엘 당국자들이 말했다. 그는 이어 사우디아라비아와 요르단, 카타르 등도 방문한다. 카타르는 지난달 7일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공격 당시 납

치된 인질들의 석방을 놓고 미국, 이스라엘, 하마스가 관여하는 협상을 중재하고 있다.

맥거크 조정관은 또한 중동으로 가는 길에 벨기에 브뤼셀에 들러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및 유럽 동맹국들과 가자지구 전쟁에 대한 의견을 조율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의 중동 순방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전쟁이 확산하는 것을 막고 양측의 교전 중단과 하마스 억류 인질 석방 협상을 성사하기 위한 바이든 행정부 노력의 일환으로 보인다.

윌리엄 번스 미 중앙정보국(CIA) 국장과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도 최근 2

주 동안 비슷한 목적으로 이스라엘 등 중동 국가들을 방문했다.

맥거크 조정관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로 바이든 대통령과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동안 중동과 유럽을 순방하는 셈이 된다.

그는 설리번 보좌관과 함께 매일 여러 차례씩 카타르와 이집트 당국자와 통화하며 하마스 억류 인질 석방 협상에 깊이 관여해왔다고 정통한 소식통이 말했다.

백악관은 맥거크 조정관의 중동 순방과 관련한 질의에 언급을 거부했다고 약시우스는 덧붙였다. / 홍윤찬 기자



영국 현충일 행사 참석한 찰스 3세 국왕 등 왕실 인사들

런던 울려 퍼진 참전용사의 아리랑 찰스3세 참석 英현충일 행사

영국이 찰스 3세 국왕 등이 참석하는 현충일 행사에서 한국전쟁 정전 70주년을 맞아 참전용사들을 기렸다.

11일(현지시간) 저녁 런던 로열 앨버트 홀에서 개최된 '페스티벌 오브 리멤버런스'에서는 한국전 참전용사 폴린 새커리씨가 무대에 올라 한국어로 아리랑을 열창했다.

새커리씨는 2019년 영국 오디션 프로그램 '브리튼스 갓 탤런트'에 출연해 최고령 우승자가 됐던 인물이다.

그는 올해 7월 부산에서 개최된 '유엔군 참전의 날·정전협정 70주년 기념식'에서도 아리랑을 불렀으며 2호 명예보훈장 관으로 위촉되기도 했다. 새커리씨는 93세 고령에도 힘 있는 목소리와 비교적 정확한 발음으로 노래했다.

새커리씨는 노래 부르기 전 "아리랑은 단합, 힘, 추모를 상징합니다. 우리는 한국전 참전용사입니다. 우리를 잊지 마세요"라고 말했다. / 최정민 기자

영국은 1차 세계대전 휴전일(11월 11일)을 현충일로 삼고 그 무렵 토요일엔 재향군인회 주최로 로열 앨버트홀에서 전사자 추모 행사를 한다. 일요일엔 도심의 세노타프(전쟁기념비) 주변에서 퇴역군인들이 참가하는 행진이 있다.

국왕을 포함해 왕실 주요 인사와 총리 등 주요 정치인들이 참석하는 행사로, BBC를 통해 생중계된다. 이날도 찰스 3세 부부와 윌리엄 왕세자 부부 등이 객석에 앉았다. 리시 수석 총리 부부의 모습도 보였다.

올해 현충일 행사는 마침 윤석열 대통령의 오는 20~23일 영국 국빈 방문을 앞둔 시점에서 열린 것이기도 하다.

찰스 3세 국왕은 지난 8일에는 사전 이벤트 격으로 유럽 최대 한인타운인 뉴몰든을 처음 방문했다. 그 전날에는 의회 '킹스 스피치'를 통해 윤 대통령 부부 국빈 맞이를 고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 최정민 기자

日 여당, 후쿠시마현 지방의원 과반 실패...“기시다 지지율 여파” ‘오염수 방류’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원전 소재 지역

일본 도쿄전력의 후쿠시마 제1원자력 발전소가 있는 후쿠시마현 현의원 선거에서 집권 여당인 자민당이 과반 유지에 실패했다.

13일 교도통신 보도에 따르면 전날 치러진 후쿠시마현 현의원 선거에서 자민당 후보 33명 중 4명이 낙선하고 29명만 당선됐다.

이로써 자민당 소속 후쿠시마현 의원은 종전 31명보다 2명이 줄면서 현의회 전체 정원 58석에서 단독 과반을 유지하는 데 실패했다. 대신 무소속 출신 후보들이 11명이나

당선되면서 정당 소속 후보들 입지가 줄어들었다.

일본 언론은 이번 선거 결과에 기시다 후미오 내각의 지지율 하락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내다보고 있다.

자민당의 후쿠시마현 지방조직에 소속된 한 간부는 선거 기간 “기시다 총리에 대한 불신이 커지면서 도시권을 중심으로 상당한 역풍이 불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기시다 총리가 이끄는 현 내각에 대한 지지율은 최근 각종 여론 조사에서 정권

출범 후 최저치를 잇달아 경신하고 있다.

특히 교도통신이 지난 3~5일 1천40명을 상대로 벌인 설문조사에서는 지지율이 28.3%에 그쳤다.

이 언론사 여론조사에서 내각 지지율이 30%를 밑돈 것은 자민당이 2012년 정권을 탈환한 이후 처음이다.

앞서 후쿠시마현과 인접한 미야기현에서 지난달 22일 치러진 현의원 선거에서도 자민당은 5명이 낙선해 연립 여당인 공명당 의석과 합쳐도 과반에 못 미치는 패배를 안았다. 후쿠시마현 등 일본 동북 지역에서는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2011년 3월에 발생한 동일본대지진 여파로 올해의 경우 4월에 치러진 동일 지방선거와는 별도의 일정으로 지방선거를 치른다.

/ 차형철 기자

광고 문의 : 1533-1545

태국, 주요 관광지에 中경찰 배치...“안전우려 불식·신뢰 제고”

쇼핑몰 총기난사 중국인 사망 후속 대책...관광객 유치 총력전



공항서 중국 단체 관광객 환영하는 태국 총리

태국 정부가 주요 관광도시 순찰에 중국 경찰을 참여시키기로 했다.

중국 관광객을 안심시키고 더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조치다. 13일 현지 매체 네이션에 따르면 태파니 깃앗파이분 태국관광청장은 전날 방콕 수완나품공항에서 세타 타위신 총리와 회의를 마친 뒤 이같이 밝혔다. 이 회의는 태국을 방문하는 외국 관광객의 안전에 대한 우려를 불

식하고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대책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태파니 관광청장은 “중국 경찰을 배치하는 것은 태국이 안전 조치를 강화하고 있다는 것을 중국 관광객에게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자국 경찰이 태국이 안전한 곳이라고 확인해주면 중국 관광객들의 신뢰가 높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 오창순 기자

태국은 오는 15일 주태국 중국대사관과 중국 경찰 파견 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다. 태국은 관광산업이 직간접적으로 국내총생산(GDP)의 약 20%를 차지하는 나라다. 중국인은 태국을 찾는 외국 관광객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코로나19 사태 이전인 2019년 전체 외국 관광객 약 4천만명 중 중국인이 1천100만여명이었다. 태국은 코로나19 사태로 타격을 입은 경제와 관광산업 회복을 위해 중국 관광객 유치를 위한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지난 9월 말부터 내년 2월 말까지 중국 관광객 무비자 입국을 허용했으며, 비자면제 영구화도 검토 중이다.

그러나 지난달 3일 방콕 쇼핑몰 시암파라곤에서 발생한 총기난사 사건 당시 중국 관광객 1명이 사망하고 1명이 다치면서 안전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총기난사 사건 이후 중국 관광객들의 입국이 주춤하자 태국 정부는 안전 대책 마련에 나섰다. / 오창순 기자

“크림이 너무 적네”...‘슈링크플레이션’ 논란에 휩싸인 오레오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쿠키인 100여 년 역사의 오레오가 ‘슈링크플레이션’(가격은 그대로 두거나 올리면서 제품 용량을 줄이는 것) 논란에 휩싸였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2일 보도했다.

미국 루이지애나주 뉴이베리아에 사는 생수 세일즈맨 세인 랜소넷 씨는 몇 달 전 평소처럼 저녁에 오레오 쿠키 포장지를 뜯었다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습관처럼 우유 잔에 담그기 위해 쿠키 사이 크림에 포크를 찌러넣었는데, 쿠키가 깨진 것이다.

많은 미국인이 오레오 사이에 포크를 끼운 뒤 우유에 적셔서 먹곤 한다.

랜소넷 씨는 상자 안의 다른 오레오도 쿠키에 더 적은 양의 크림이 묻어있는 것을 발견했다.

미국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크림의 양이 두 배로 들었다는 ‘더블 스테프 오레오’에 정상적인 양의 크림이 들었고 원래 버전에는 덜 들어갔다는 주장도 많다.

일부는 크림이 쿠키의 가장자리까지 닿지 않는다고, 제품이 포장지의 그림과 다르다고 불평하고 있다.



오레오 쿠키

오레오의 경쟁 상대인 하이드록스를 홍보하는 오레오 팬들도 생겨났다. 하지만, 오레오 제조사인 몬텔리츠 측은 쿠키와 크림의 비율을 바꾸지 않았으며 이런 주장들을 일축하고 있다. / 황수진 기자

오늘의 행복이 내일의 행복이 되도록

고객 한 분 한 분의 모든 하루,
나아가 푸른 자연까지
모두가 행복할 방법을 고민합니다

한화손해보험은 내일의 행복을 위해
ESG 경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화손해보험의 ESG 경영
PEOPLE 사회구성원 모두를 위한 맞춤형 서비스 PLANET 글로벌 기준의 친환경 경영 생태계 조성 동참
PROSPERITY 디지털 혁신 기반 지속가능 투자 GOVERNANCE 건전하고 투명한 기업 지배구조 조성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SK도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 더 나은 지구와 인류의 미래를 위한 행동. World EXPO 2030 BUSAN의 시작! WAVE

A. 잠결에 나는 통화 내용도 녹음하고 요약해 줬어요

A. iPhone 통화녹음 내용을 쉽게 검색해 보세요

A. 운전 중 통화한 내용도 녹음하고 기록해 줬어요

A. 농친 통화 내용은 통화녹음으로 확인해 보세요

A. 통화 내용의 일정도 쉽게 등록하세요

| 통화 내용을 녹음, 요약, 검색까지 해 주는 A. 통화요약

A. iPhone 통화녹음이 필요할 땐 나만의 AI 개인비서, 에이닷

SKT의 AI는 누구에게나 있다
AI for Everyone
SK telecom



현대차, 울산에 전기차 공장 짓는다...2026년부터 연20만대 생산

AI·친환경 접목한 제조혁신 플랫폼...인간중심 공장으로

현대차가 전동화 시대를 맞아 국내 '자동차 산업의 심장' 울산에서 새로운 도전을 시작한다.

현대차는 울산공장 내에 연산 20만대 규모의 전기차(EV) 전용 공장을 지어 차세대 모빌리티 개발·생산을 본격화한다.

현대차는 13일 오전 울산공장에서 정 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김두겸 울산시장,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울산 EV 전용 공장' 기공식을 개최했다.

현대차는 앞으로 2조원을 투자해 축구장 80개에 달하는 54만8천㎡ 규모 부지에 EV 전용 공장을 짓는다. 현재 주행사협장으로 쓰이는 곳이 EV 전용 공장으로 대대적으로 탈바꿈한다.

현대차가 국내에 새 공장을 짓기는 1996년 아산공장 이후 처음이다. EV 전용

공장은 오는 2025년 완공되며, 이듬해 1분기부터 양산을 시작한다. 완공 시점 기준으로 29년 만의 신공장이자.

EV 전용 공장은 연간 전기차 20만대 생산 능력을 갖춘다.

현대차 고급 브랜드 제네시스의 초대형 SUV 전기차 모델이 이 공장에서 처음 생산될 예정이다.

정 의선 회장은 이날 기공식 인사말에서 "울산 EV 전용 공장은 앞으로 50년 전동화 시대를 향한 또 다른 시작"이라며 "이 자리에서 100년 기업에 대한 꿈을 나누게 돼 영광"이라고 말했다.

정 회장은 "과거 최고의 차를 만들겠다는 꿈이 오늘날 울산 자동차 공업 도시로 만든 것처럼 현대차는 EV 전용 공장을 시작으로 울산이 전동화 시대를 주도하는 혁신 모빌리티 도시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대차는 EV 전용 공장을 혁신적인 제조 플랫폼과 최적의 근무 환경을 갖춘 인간 중심의 공장으로 만들어 전동화 시대 현대차 모빌리티 생산의 허브로 자리매김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56년간 쌓아온 브랜드 헤리티지와 자동차 사업 노하우, 기술 역량을 적극 계승하고 '사람 중심'의 전동화 시대를 열겠다는 각오다.

이를 위해 혁신적인 생산 설비와 최적의 근무 환경을 갖추고, 자연과 함께 공존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기로 했다.

또 이 공장에 '싱가포르 글로벌 혁신센터'(HMGICS)에서 개발한 제조 혁신 플랫폼을 적용, 근로자 안전과 편의성, 효율적 작업을 고려한 미래형 공장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HMGICS 플랫폼에는 인공지능(AI) 기반 지능형 제어 시스템과 친환경 저탄소 공법, 인간 친화적 설비 등이 포함돼 있다.

이날 기공식은 '오래된 미래'를 콘셉트로 울산공장 근무자 시점에서 울산공장의 과거와 현재를 되돌아보고 앞으로 펼쳐질 미래를 보여주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창업주 고(故) 정주영 선대회장의 영상이 공개되기도 했다.

패널 토크도 열렸다. '사람을 위한 공간'으로 탄생할 울산 EV 전용 공장의 주요 특징과 비전이 소개되는 자리였다.

김두겸 울산시장은 "글로벌 자동차 산업 변화에 발맞춰 새로운 미래를 함께 그려 나가기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 배중석 기자



올해는 빼빼로데이 특수도 실종 편의점 매출 2~8%대 감소

11일이 토요일인데다 한파도 영향
당일 매출 최대 19% 빠져

'올해 편의점 빼빼로데이 특수는 없었다'

편의점업계가 연중 최대 대목이라는 빼빼로데이(11월 11일) 마케팅 기간 기대했던 성과를 올리지 못해 울상이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CU는 빼빼로데이 마케팅 기간인 이달 1~11일 관련 상품 매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8.2% 줄었다. 세븐일레븐은 5% 감소했으며, GS25도 2.6% 빠졌다.

이마트24는 2% 증가했으나 통상 10% 안팎의 증가율을 보이던 과거와 비교하면 썩 시원찮은 성적이다.

업계에서는 공교롭게도 빼빼로데이 당일이 토요일이었던데다가 갑작스럽게 닥친 한파가 매출에 악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한다.

실제 CU의 경우 11일 이전까지 사전

마케팅 기간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2% 증가했으나 11일 당일에는 19%나 감소해 전체 매출 성적을 끌어내렸다. 이마트24 역시 11일 당일 매출이 14% 줄었다.

업계 관계자는 "빼빼로데이는 11일 당일이 어떤 요일이나가 전체 매출 성적을 좌우하는데 올해는 토요일인 데다 한파까지 겹치며 매출 하락을 피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고금리·고물가로 유통업계에 몰아치고 있는 소비침체 '사풍'을 빼빼로데이 역시 피하지 못했다는 시각도 있다.

CU가 분석한 가격대별 매출 구성비를 보면 5천원 미만은 52.6%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1만~2만원 미만 27.7%, 5천~1만원 미만 14.3%, 2만원 이상 5.4%였다. 통상 빼빼로데이에겐 1만원 미만 상품이 잘 팔리긴 하지만 올해는 중저가 강세 현상이 두드러졌다고 CU는 분석했다.

/ 한지현 기자

“채무자 소멸시효 완성되면 채권 추심해도 갚을 책임 없어”

민원인 A씨는 과거에 통신요금을 연체했지만, 별다른 청구를 받지 않은 지 3년이 지났다. A씨는 채권추심을 위임받은 신용정보회사가 우편물, 전화 등으로 추심을 시작하자 이미 시효가 경과된 채무를 변제해야 하는지 문의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통신채권 3년·상행위 채권 5년 등)에 따른 추심 중단을 요청하는 경우 채권

추심회사는 추심을 중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채권추심회사가 가능 기간이 지난 채권을 추심하는 경우 갚을 책임이 없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한다고 금융감독원은 당부했다.

금융원은 이런 사례 등을 담은 '상반기 주요 민원으로 알아보는 채권추심 관련 소비자 유의사항'을 13일 발표했다.

다른 사례를 보면 B씨는 C사로부터 전

산시스템 구축 용역을 제공받았지만, 결과물 품질에 대한 다름으로 용역대금 정산이 완료되지 않은 상황이었다.

신용정보회사로부터 채권추심 수입 사실 통지서를 수령한 C사는 채무를 연체하거나 패소하지 않았는데 추심이 진행되고 있다는 내용의 민원을 제기했다.

이 사례처럼 적법한 채권추심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채권추심회사에 연락해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거나 금융원에 신고·민원 접수를 해야 한다고 금융원은 전했다. 아울러 금융원은 법원이 개인 회생절차를 폐지할 경우 채권추심이 다

시 진행될 수 있어 회생계획 등에 따른 변제를 이행해 채권추심이 재개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원에 따르면 신용회복위원회에 개인채무조정을 신청한 경우 채권금융회사가 접수 통지를 받으면 추심활동이 중지되지만 3개월 이상 불이행하면 채권 추심이 다시 진행될 수 있다. 이 밖에 채권추심 직원이 변제자금 마련을 강요하거나 가족·지인이 대신 채무를 갚도록(제3자 대위변제) 유도할 경우 거절하고, 빚을 상환한 경우 반드시 채무변제확인서를 수령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 노승만 기자

유인촌, 이부진과 관광전략 논의...“내년에 관광객 2천만명 유치”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서울 종로구 북촌 설화수의 집에서 열린 '2023-2024 한국방문의 해' 계기 관광 전략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오른쪽은 이부진 한국방문의해위원.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13일 "한국방문의 해를 맞아 외래관광객이 K-컬처의 발신지인 우리나라를 직접 방문해 즐길 수 있는 차별화된 관광콘텐츠를 발굴하고 확산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라며 내년도 외래관광객 유치 목표를 2

기 위해 마련됐다. 유 장관은 "제가 한국방문의 해가 내년까지이니까 우리 이부진 위원장님도 계시고 관계자들이 많이 계시니까 겁도 없이 국회에서 2천만명을 (유치) 하겠다고 선언했다"고 말했다.

방법을 찾아 올해 안에 준비해서 내년부터는 사건이 좀 일어났으면 한다"고 설명했다.

유 장관은 관광 정책 주요점을 묻는 질의에는 "외국에서 오는 관광객의 취향도 바뀌었고 개인 여행이 많아졌다. 심지어

유 장관 주재 첫 관광 행사...“외래관광객 유치 위해 관광콘텐츠 발굴 확산 총력” 이부진 위원장, “소통·협업하고 한국방문의해위원회와 열심히 노력”

천만명으로 제시했다. 유 장관은 이날 북촌 설화수의 집에서 '2023~2024 한국방문의 해'를 맞아 이부진 한국방문의해위원장과 관광, 뷰티, 패션, K-팝 댄스 관계자 등과 만나 관광 전략을 논의하는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번 간담회는 유 장관이 취임 이후 주재한 첫 번째 관광 관련 행사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국제관광이 회복되는 상황에서 K-컬처에 대한 높은 인지도를 바탕으로 전환하는 관광 전략을 업계와 함께 모색하

그러면서 "현재 국내에 계신 분이 해외에 가는 게 훨씬 많아 관광산업 자체로는 상당한 적자다. 사실 내년 말까지 2천만명을 과연 할 수 있을지 이젠 이제 숙제인 하지만 노력을 해야겠다"고 강조했다.

유 장관은 또 "외국 사람이 한국을 찾는 이유는 음식과 쇼핑, 음악, 뷰티, 패션 등으로 나타났다"며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서도 소홀했던 분야"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 분야에서 확실하게 선전할 수 있는 이벤트나 회의, 제품개발 등

개인마다 취향도 엄청 다르다"며 "이제는 맞춤 전략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답했다.

이부진 한국방문의해위원장은 "각계각층에서 열심히 노력해주시는 분들을 보니 관광산업의 스펙트럼이 얼마나 넓어졌는지 실감이 난다"며 "현장에서 잘 느끼고 계시겠지만 한국을 찾는 외래 관광객의 한국에 대한 지식이나, 관심의 수준과 깊이가 날로 달라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러분과 함께 소통, 협업하고 한국방문의해위원회와 함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 임현석 기자

NH 농협 함께하는 100년 농협

농촌여행은 웃음이 익어가는 여행

아이도 어른도 함께 웃으며 행복을 찾을 수 있는 모두가 그리워하던 여행

마음이 원하는 우리 농촌에서 힐링 여행을 보내세요

K-콘텐츠,
단다 준비했다 아이가

[영화의 전당에서, 부산 연극영화극단 김현준 이태민 최명경 님]

2030 부산세계박람회 BUSAN IS READY!

부산에서 시작해 전세계가 함께하는
인류의 더 나은 미래가치를 위하여

미래, 같이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LG가 함께 응원합니다



World EXPO 2030
BUSAN, KOREA



서울시, 수능일 교통 총력지원...지하철 집중배차·비상수송

소음관리 위해 버스·택시 경적금지·공사중지...관공서 출근 10시로 늦춰

서울시는 오는 16일 2024학년도 대학 수능능력시험(수능)을 치르는 수험생을 위해 교통종합대책을 수립·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우선 지하철 오전 집중 배차 시간을 오전 7~9시에서 오전 6~10시로 연장하고, 연장 시간대에 지하철을 31회 추가 운행한다.



수능일인 17일 오전 광주 서구 서석고등학교에서 한 수험생이 지각을 피하기 위해 달리고 있다.

시내·마을버스 역시 입실 시간을 고려해 오전 6시부터 8시 10분까지 운전원의 휴게시간을 최소화하고 최소 배차간격을 유지해 운행한다. 또 지하철 역사에 시험장 안내문을 부착하는 등 수험생들에게 시험장행 노선과 위치를 안내한다.

수험생 수송 지원차량도 운행한다. 민·관용 차량 698대가 시험장 인근의 지하철역, 버스정류소, 주요 지점 등에 대기하며, 수험생이 승차를 요청하면 시험

장까지 무료로 데려다준다. 시는 교통약자 수험생이 시험장까지 편안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수능 당일 장애인 콜택시를 수험생에게 우선 배차하

도록 했다. 자치구 공무원과 민간단체 봉사자 등 2천400여 명이 시험장 주변이나 교통이동 주요 지점에 배치돼 비상 수송차량 탐승, 교통질서 유지를 돕는다.

/ 안중호 기자

수험생이 제시간에 시험장에 도착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시·자치구·관공서 등의 시험 당일 출근 시간도 평소보다 1시간 늦은 오전 10시로 늦춘다.

수험생이 시험에 집중할 수 있도록 시험장 인근 지하철 시설물 검사 및 공사는 일시 중지된다.

각 운송조합에도 버스나 택시 운행 중 경적을 울리는 등 소음을 내지 않도록 사전에 요청했다. 수능 시험 당일 교통혼잡 최소화를 위해 시험장 반경 2km 이내 학교 및 지하철역 주변으로 주정차 위반차량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시험장 전방 200m 도로에서는 대중교통을 제외한 차량 진출·입이 통제되며 주차도 금지된다.



국민의힘 윤영석 국회의원이 13일 양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출입 기자들과 대화하고 있다.

윤영석 “부산과 통합 제기되면 ‘부산시 양산구’ 결코 안 돼”

국민의힘 윤영석 국회의원(경남 양산갑)은 최근 당론으로 추진하는 ‘김포의 서울 편입 논란’과 관련 일부 부산 정치권에서 제기한 경남 양산·김해의 부산 편입 희망 논란에 대해 철저히 시민 의견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13일 양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출입 기자들을 만나 “일관되게 말했다. 행정구역 관련 건은 전국적인 개편이 있어야 한다”며 “양산과 부산, 김해 통합이 당론으로 제기된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 의견을 수렴하는 행정절차와 주민투표 등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서울시 김포구’ 방식으로 행정통합 방안을 검토 중인데 양산시의 경우 ‘부산시 양산구’ 방식으로는 결코 안 된다”며 “양산시가 현재 가진 재정자립도 3천여억원 이상인데 만약 ‘양산구’로 된다면 그 예산의 3분의 2가 부산시로 넘어간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밖에 토지이용계획 권한 등 양산시가 가진 자치권이 양산구로 되면 전혀 행사할 수 없고 부산시로 넘어가 양산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이 사라진다”며 “부·울·경(부산·울산·경남) 행정 중심도시인 데다 양산시는 부산보다 평균 연령도 5세 이상 낮은 젊은 도시로 시의 백년대계를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 의원은 만약 당론으로 부산과의 통합이 제기된다면 양산시 명칭과 권한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지속 가능한 발전이 이뤄질 수 있도록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윤 의원은 최근 당 혁신위원회에서 제기된 당내 3선 이상 중진 의원들의 퇴진 또는 힘차 출마론에 대한 의견을 묻자 “양산에 뼈를 묻겠다는 각오는 지금도 변함이 없다”고 밝혀 내년 총선에서 양산 출마에 대한 의지를 다시 한번 강조했다.

/ 최준용 기자

환경단체 “청남대 내 푸드트럭 운영 허가해준 충북도 조사하라”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은 13일 “상수원 허가해준 충북도를 철저히 조사하라”고 보호구역인 청남대에서 푸드트럭 운영을 밝혔다.

이 단체는 이날 청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는 상수원보호구역인 청남대 내에서 푸드트럭 운영이 불가하다는 것을 인지했음에도 조달청 나라장터 입찰을 통해 푸드트럭 운영자를 모집했고, 권한도 없으면서 푸드트럭 운영이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허가 주체인 상당구청에 내줬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관광 활성화를 위해 청남대 내 푸드트럭 운영을 허가해놓고 인제 와서 푸드트럭 업체에게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며 “청주시 상수도 사업본부는 수도법 위반의 주범인 도를 수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시 상수도 사업본부 특별사법경찰은 지난달 21일부터 지난 5일까지 청남대에서 열린 가을 축제 현장에서 푸드트럭을 운영한 업체들을 수도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현행법상 상수원보호구역에서 야외취사 등 불법행위를 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을 받게 된다.

/ 장도희 기자

“제야의 종 치실 분 추천받아요”...서울시, 내달 8일까지 공모

코로나로 4년 만에 타종 인사 추천 재개

서울시는 다음 달 31일 밤 12시 종로구 보신각에서 열리는 ‘제야의 종’ 타종 행사에 참여할 시민대표를 추천받겠다고 12일 밝혔다. 제야의 종 타종 행사는 1953년부터 이어온 한국을 대표하는 새해맞이 행사다. 2005년부터는 온라인 공개 추천을 통해 시민 대표를 선정해 타종 행사에 함께 해왔다.

올해 타종 인사 추천은 2019년 이후 4년 만이다. 그동안 코로나19 확산으로 행사가 축소되면서 시민 공개 추

천 또한 진행하지 못했다. 시는 심사를 거쳐 6명 안팎의 시민 대표를 선정할 예정이다. 타종 인사로 선정되면 12월 31일 보신각 제야의 종 타종 행사에 참석해 울해를 마무리하는 총 33회의 타종에 직접 참여하게 된다. 2019년 시민 공모로 타종 행사에 참여한 주요 인사로는 EBS 자이언트 팽TV의 ‘팽수’, 범죄심리학자 이수정 교수 등이 있었다. 이번 추천 기간은 이달 13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다. 타종 인사 공모 홈페이지(<https://2023bell.co.kr>)에서 추천인, 추천 사유 등을 기재해 신청하면 된다. / 김철규 기자

성남시의회 파행 두달 만에 정상화 3차 추경 지각 처리

경기 성남시의회는 13일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성남시의 3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3차 추경 예산안은 1천575억원을 증액하는 규모로 시가 지난 8월 제출한 지 3개월여만에 지각 처리됐다.

시의회는 지난 9월 임시회 추경안 심의 과정에서 여야가 충돌하면서 파행의 원인이 된 ‘분당보건소 신축 용역비’(1억1천500만원)를 전액 반영해 이번 추경안을 통과시켰다. 추경안은 재적의원 34명 모두 표결에 참여해 찬성 33명, 반대 1명으로 가결됐다.

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분당구보건소 이전 신축 및 공공의료클러스터 조성사업’이 민선 8기 신상진 시장 체제에서 중단되자 철회를 요구하며 이번 추경안에 편성된 ‘분당구보건소 현 부지 신축’ 관련 예산을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분당구보건소 현 부지 신축 문제로 시와 차병원 측이 행정심판을 진행 중이므로 행정의 위법성을 다루는 상황에서 처리가 시급한 예산이 아니라는 이유였다. 반면 국민의힘과 성남시는 ‘현 부지 신

축’이라는 입장 속에 예산 편성을 요구하며 맞서면서 추경안 처리가 무산됐고 시의회는 파행했다.

이후 의회 파행은 두 달 넘게 이어졌고, 그러는 동안 분당보건소를 이전하지 않고 현 위치에 신축하기로 한 성남시 결정을 무효로 해달라며 차병원 측이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에 제기한 행정심판 청구가 지난 6일 각하됐다.

이에 민주당은 추경안 처리를 위해 이날 임시회를 열기로 국민의힘과 합의해 한발 물러섰다.

앞서 시의회는 지난 9~10월 제285회 임시회(9월 11~19일)와 제286회 ‘월 포인트’ 임시회(9월 26일), 제287회 임시회(10월 19~23일)에서 3차 추경안을 처리하려 했으나 ‘분당보건소 신축 용역비’를 둘러싼 여야 견해차로 안건 처리가 불발됐다.

이에 따라 가정양육수당, 영유아보육료, 노인종합복지관 운영비 등 민생사업과 탄천교량 보도부 철거공사비, 노후 교통 안전 점검 용역비 및 보수공사비 등 안건 관련 예산 집행에 차질이 빚어져 비난 여론이 일었다. / 오문섭 기자



전북 홍보관 개관

중국 베이징에 전북홍보관 개관 “관광 활성화 기대”

전북도는 중국 베이징시에 ‘전북북도 전용 홍보관’을 개관했다고 13일 밝혔다.

홍보관은 국내 엔터테인먼트 기업인 CGV가 운영하는 영화관인 베이징 CGV에 마련됐다. 도는 앞으로 6개월간 영화관 중앙홀 전관과 상영관 입구, 의자, 통로 등에 전북을 소개하는 홍보물을 설치해 운영할 계획이다.

도는 최근 중국인 단체관광객의 한국 방문 자유화에 발맞춰 홍보관 운영을 통한 관광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

김관영 도지사는 “우리나라 문화관광수입도 전북의 맛과 멋을 중국 전역에 알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내년 출범하는 전북 특별자치도의 인지도 향상을 위한 대외교류와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유현주 기자

신한이 청년을 응원해

청년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취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신한이 주거비 및 학습공간을
적극 지원해 드립니다

지금, '신청해'를 신청하세요!

신한이 청년을 응원해 '신청해'

대상 : 고졸·동부 직업교육훈련과정에 참여하는 비수도권 출신 취업준비생 청년 2,000명
내용 : 수도권* 거주 부담 완화를 위한 주거비용 지원 및 학습공간 이용비 지원
신청기간 : 2023년 9월 18일 ~ 10월 9일 (3주간)
신청접수 : www.shinchunghae.co.kr

*수도권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를 통틀어 지칭함

World EXPO 2030 |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신한금융그룹이 응원합니다
BUSAN, KOREA

더 쉽고 편안한, 더 새로운 금융 신한금융그룹

지금, 캐스퍼 사기 딱 좋은 달 Season of CASPER



2023 코리아세일페스타 캐스퍼 특별 기획전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최대 250만원 상당의 놀라운 캐스퍼 할인 혜택을 만나보세요



■ 캐스퍼 전용 구입 문의 전화 및 고객센터: 090-500-6000 ■ 정부 공인 판매처: 스페이스프림 기술인 1.0 자동 4단(27인치) 14.3km/KWh, 최고속도: 155km/h | CO2 배출량: 115g/km | 제1차량 998cc | 공차중량: 985kg | 등급: 경형 ■ 스페이스프림 기술인 1.0 자동 4단(27인치) 14.3km/KWh (도심: 13.0km/h, 고속도로: 14.8km/h) | CO2 배출량: 119g/km | 제1차량 998cc | 공차중량: 1,020kg | 등급: 경형 ■ 카약 1.0 터보 자동 4단(27인치) 12.8km/KWh (도심: 13.3km/h, 고속도로: 15.2km/h) | CO2 배출량: 130g/km | 제1차량 998cc | 공차중량: 1,000kg | 등급: 경형 ■ 카약 1.0 터보 자동 4단(27인치) 12.8km/h (도심: 13.0km/h, 고속도로: 14.2km/h) | CO2 배출량: 136g/km | 제1차량 998cc | 공차중량: 1,060kg | 등급: 경형 ※ 위 연비는 표준모드에 의한 연비로서 도로상태, 운전방법, 차량부하, 정비상태 및 에어컨등에 따라 실제 운행 연비와 차이가 있습니다. ※ 공차중량, 급가속 및 급제동은 해지 단서다. ※ 경속주행은 합시다. ■ 한자자동차는 전국 어느 곳에서도 같은 서비스, 같은 가격으로 바쁜 고객을 섬기고 있습니다.

“경기도민 66.3%, ‘김포 등 서울시 편입’ 반대”[리얼미터]



지난 5일 김포시의 서울 편입안이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 김포시 한 거리에 서울 편입을 환영하는 현수막이 걸려있는 모습

경기도민 10명 가운데 6명 이상이 김포 등 서울 근접 중소도시의 서울 편입에 반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2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경기도 의뢰로 지난 2~5일 18세 이상 경기도민 3천4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에서 김포 등 서울 근접

중소도시를 서울시로 편입하는 것에 대해 66.3%(매우 반대 53.1%, 반대하는 편 13.2%)가 '반대한다'고 답했다. '찬성한다'는 응답의 비율은 29.5%(매우 찬성 18.1%, 찬성하는 편 11.4%)였고, '잘 모르겠다'는 4.2%였다.

찬성 29.5%...의왕·파주·양주·화성 등 반대 70% 상회
광명·구리·하남 순 찬성 많아...김포는 찬성 36.3% vs 반대 61.9%

모든 연령대에서 반대 의견이 많았는데 40대(반대 73.8% vs 찬성 23.2%), 50대(반대 70.8% vs 찬성 27.1%), 30대(반대 70.2% vs 찬성 27.1%), 18~29세(반대 70.1% vs 찬성 23.7%)에서는 반대 의견이 70%를 넘었다.

70세 이상에서는 찬성 의견이 42.4%로 다른 연령대보다 높은 비율을 보였다.

경기남부(반대 65.9% vs 찬성 29.5%)와 경기북부(반대 67.6% vs 찬성 29.5%)는 비슷한 경향을 나타냈다.

31개 시군별로 보면 의왕시(73.5%), 파주시(73.3%), 양주시(73.0%), 화성시(72.5%), 시흥시(71.1%) 등의 순으로 반대 의견이 많았다.

서울시 편입 지역으로 거론되는 광

명시가 찬성 의견이 47.4%로 상대적으로 가장 많았고 구리시(41.5), 하남시(38.5%), 동두천시(36.4%) 등의 순이었다.

서울 편입 논란의 시발이 된 김포시의 찬성 의견은 36.3%로 동두천시 다음이었다. 김포시의 반대 의견은 61.9%였다.

성별로는 남녀 큰 차이가 없었고, 직업군별로 사무·기술직(75.4%)과 경영·관리·전문직(70.0%)에서 반대한다고 답한 비율이 다른 직업군에 비해 많았다.

이번 조사는 무선(70%)·유선(30%) 무작위 생성 표집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RDD) 자동응답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7%였다.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 1.8%포인트다.

/ 송원기 기자



13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김광덕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이 청소년 유해물품 불법판매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성인 인증없이 청소년에 성인용품 판매한 인터넷사이트 적발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청소년유해매체물인 성인용품을 성인 인증 없이 청소년에게 불법 판매한 혐의(청소년보호법 위반)로 인터넷사이트 A를 대표를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3

2~8월 구매한 성인용품 144건과 어머니 개인정보를 이용해 다른 사이트에서 구매한 성인용품 등 179건을 SNS를 통해 13~18세 청소년 166명에게 470만 원을 받고 되판 혐의를 받고 있다.

경기도 특사경, 144건 구매해 또래 163명에 되판 10대도 입건

일 밝혔다. 또 A물에서 성인용품을 구매해 또래 청소년들에게 판매한 B(17) 양을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청소년유해매체물인 성 관련 용품·기구 판매 인터넷 사이트는 청소년유해표시인 '19세 미만 이용 불가'를 표시해야 하고, 판매 대상의 나이 및 본인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데 A물은 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부모와 친구 아버지 개인정보를 이용해 온라인에서 성인 인증한 뒤 전자담배기와 액상 등 34건을 구매해 SNS에서 또래 청소년에게 140만원을 받고 판매한 청소년 2명도 함께 입건했다. 관련 법령에 따라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매체물을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청·관람·이용하도록 제공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 남영정 기자

김포 단체, 서울 편입 비판 유정복 상대로 인천서 원정 집회

유정복 인천시장이 경기도 김포시의 서울 편입 계획을 "실현 가능성 없는 정치 포퓰리즘"이라고 강하게 비판하자 김포 주민단체가 항의성 원정 집회에 나섰다.

김포검단시민연대는 13일 인천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1994년 김포군 검단면을 인천시로 편입시킨 사람이 당시 유정복 김포군수"라고 말했다.

또, "검단 주민 56%의 찬성 의견으로

검단을 인천으로 넘긴 것은 맞고 김포시민 대다수가 원하는 서울 편입은 '실현 불가능한 허상이자 정치쇼'인"이라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유정복은 김포에서 관선 군수 1회와 민선 김포시장 2회를 거쳤고 김포시민들은 이후에도 유정복을 내리 3번 국회의원으로 만들어줬다"며 "정치인 유정복을 만든 것은 8할이 김포시민"이라고 강조했다.

이 단체는 김포시민들의 숙원인 서울 지하철 5호선 김포·검단 연장 사업과 관련해서도 유 시장이 해방을 놓고 있다고 주장했다.

집회 참석자들은 "5호선 연장 사업이 여기까지 오는 데는 교통지옥 속 김포·검단 시민들의 분노·설움과 함께 김포시의 서울시 건설폐기물처리장 이전 협의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유 시장은 '자신의 동의 없이 5호선은 절대 연장될 수 없다'며 표 관리에 집중하고 있는데 이견 포퓰리즘 정치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비난했다.

이어 "유 시장은 처음 김포군수가 됐을

때 김포시민들의 손으로 직접 시장과 국회의원으로 만들어줬던 그 순간을 기억하라"며 "그 회망과 기억을 저버린다면 시민들의 배신자이자 국민의 배신자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 시장은 지난 6일 기자회견에서 김포의 서울 편입안이 "실현 불가능한 허상이자 국민 혼란만 일으키는 정치 쇼"라며 "지방행정 체제 개편은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의 협력이 요구되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국민 의견 수렴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 황효섭 기자

대구서 신천지예수교 신도 10만명 수료식...큰 마찰 없어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이 12일 대구에서 신도 10만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연합수료식을 열었다.

신천지의 성경교육기관인 시온기독교 선교센터는 이날 낮 12시부터 약 3시간 동안 대구 수성구 대구스타디움과 보조경기장 일원에서 114기 수료식을 했다.

수료식에는 수료생 10만여명과 행사 관계자 등이 대거 몰렸다.

대구스타디움 행사장에 모두 들어가지 못하다가 보니 상당수 신도는 주변 광장이나 보조경기장 등에서 대형 화면을 보는 방식으로 수료식에 참가했다.

대규모 인파가 몰려 안전을 우려하는 의견이 나오면서 주최 측은 질서 유지와 안전 관리를 위해 수천명의 안내원과 응급의료팀을 배치했다고 밝혔다.

전국 각지에서 수료생을 태운 버스는 새벽부터 대구로 속속 도착했다.

2천300여대의 버스는 수료생을 행사장에 내려준 뒤 달성군 대구국가산업단지나



대구스타디움 주변에 모인 신천지예수교 신도

테크노폴리스에 흩어져 있다가 행사가 끝난 뒤 차례로 다시 태우고 귀가했다. 행사장 주변에는 차가 몰리기도 했지만 신천지 측이 차량 도착 시간이나 출발 시간을 분산하면서 우려했던 만큼 큰 정체 현상은 발생하지 않았다.

다만 대구국가산업단 도로 주변이나 대구스타디움에서 조금 떨어진 도로 주변에

는 임시 주차한 버스나 차량으로 교통 혼잡이 일부 발생해 시민들이 불만을 제기했다.

행사장 인근에서는 신천지 반대 단체가 1인 시위를 하거나 신천지를 비판하는 현수막을 걸고 집회했지만 큰 마찰은 빚어지지 않았다.

/ 홍은정 기자

경북경찰·경북도, 정신질환자 신고에 합동 대응



행정기관과 경찰이 정신질환자 신고를 받았을 때 함께 출동해 대응하는 시설이 경북 구미에 들어섰다.

12일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경북도와

경북경찰청은 지난 10일 구미시 광명동 옛 광평치안센터에 '응급입원 합동 대응센터'를 마련하고 운영을 시작했다. 대응센터는 경북경찰의 응급입원 현장 지원팀과 경북도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위기개입팀을 통합한 기관이다. 이 센터는 정신질환자와 관련한 신고가 들어오면 경찰과 행정기관이 함께 출동해 정신과적 평가와 자·타해 위험을 평가한 뒤 결과에 따라 의료기관으로 입원 조치하거나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와 연계해 관리하는 등 전문적으로 대응한다. 이런 응급입원 합동 대응센터는 서울·경기를 제외한 지역에서는 처음이다. 최주원 경북경찰청장은 "응급입원 합동 대응센터를 통해 정신질환자에 대한 더 전문적·종합적 대응을 할 수 있고 정신질환자의 인권보호 및 신속한 응급입원 조치도 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 조유진 기자

인생의 컷마다 당신에게 꼭 맞는 종신보험

(주)교보뉴프리미어종신보험

가족을 위한 보장은 물론 나를 위한 생활자금 전환 기능 경제 상황에 따른 중도인출과 자유납입 건강을 케어하는 다양한 특약까지

인생에 어떤 위기의 순간이 찾아오든 걱정 없이 대비할 수 있는 종신보험 (주)교보뉴프리미어종신보험 보증을세우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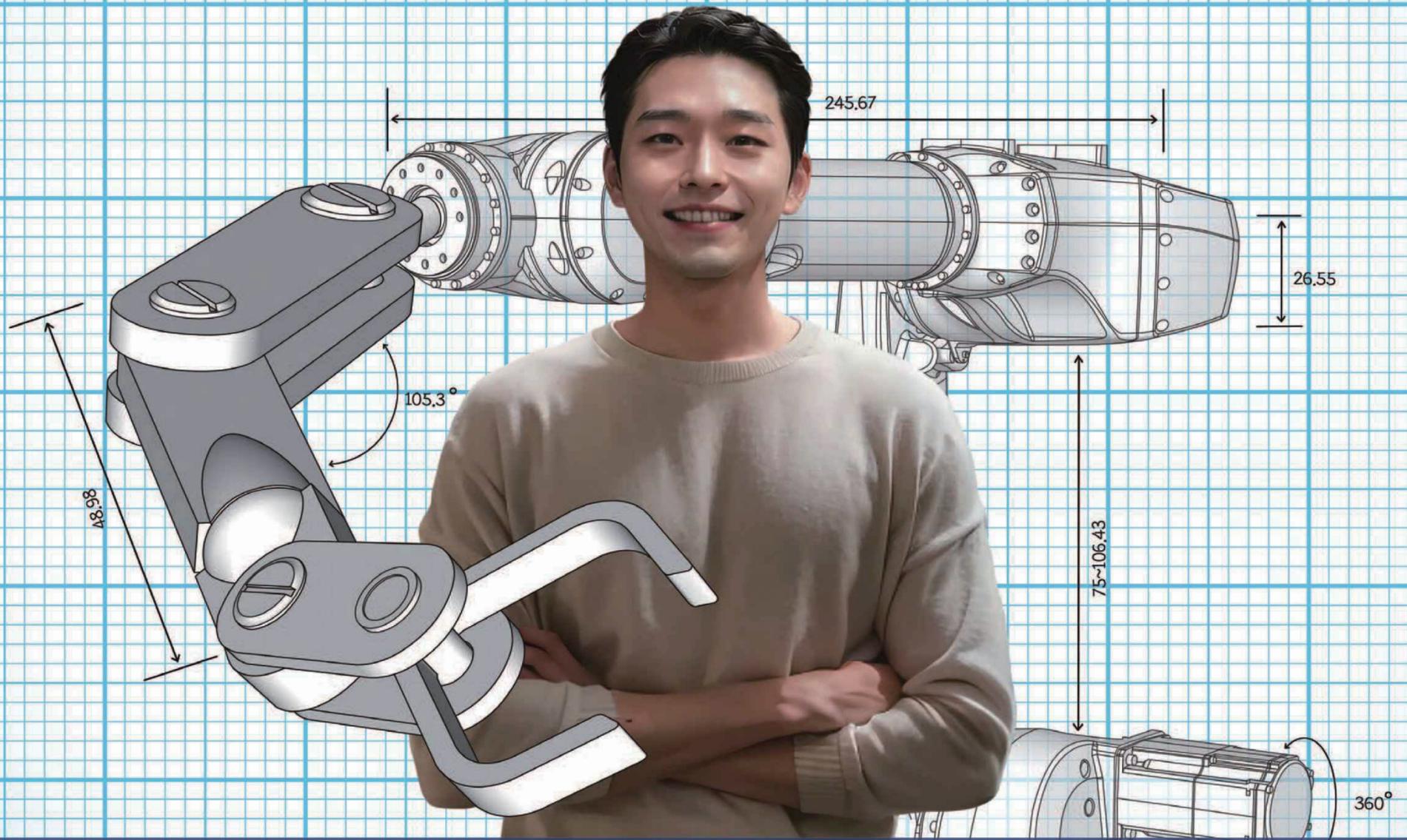
·교보생명은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본계약을 해지하고 신약약을 체결할 때에는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보험계약은 예금저축보통예금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되며, 보호 한도는 교보생명에 가입한 구비된 모든 예금저축대상 금융상품의 해환원금(또는 만기보환금)이나 사고보환금에 가산된 금액을 합하여 1억원 '최고 보장한도'이며, 단원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단, 만기보환금 및 보험료납부자가 사망하면 보호되지 않습니다. ·사망보환금 생활자금 전환은 기본보장형 플러스에 한합니다. ·유환(사망보환금)은 고의적 사고 및 2년 이내 자살의 경우에 지급을 제한합니다. ·보험계약 체결 전에 상품설명서와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관련감사인 확인필 1-2301-27 상품지원팀(2023.14~2024.13) 생명보험협회 심의필 제2023-00104호(2023.110~2024.19)

KYOBO
교보생명



만난 적은 없지만 응원하고 있습니다

여기 세계 최고에 도전하는 로봇개발자가 있습니다.
더 많은 사람이 그 꿈을 응원하게 할 수 없을까요?
지금, IBK기업은행이 창업기업을 위한 더 큰 응원을 시작합니다.
혁신창업기업지원통장으로 당신의 힘을 더해주세요.



누구나 가입 가능한 IBK혁신창업기업지원통장

※위 통장으로부터 발생하는 예금수익은 혁신창업기업을 위해 사용됩니다.

기본형
- 실세금리 정기예금
· 고시금리 연 **3.15% ~ 연 3.30%**
· 우대금리 최고 연 **0.10%**

기본형
- 중소기업 금융채권 (특리채)
· 고시금리 연 **3.10% ~ 연 3.25%**
· 우대금리 최고 연 **0.10%**

기여형
- 실세금리 정기예금
· 고시금리 무이자
· 우대금리 없음

*고시금리는 가입기간별 상이하하며, 가입일에 따라 변동가능 (23. 07. 06, 현재, 세전) *우대금리 제공조건: 기본형 가입 시 혁신창업기업 지원 메시지 등록 (자동인자)

창업벤처기업을 위한 IBK비금융서비스

IBK창업컨설팅
창업 초기 맞춤형 경영 컨설팅 제공

IBK창공
사무공간제공, 멘토링, 판로개척·마케팅 지원

IBK BOX
금융·비금융 솔루션 제공 디지털 경영지원 플랫폼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3-3303호(2023.07.06) 유효기간(2024.07.05) ※이자는 만기 일시 지급식이며, 중도 해지 시 우대금리는 제공되지 않음(기여형의 경우 원금만 지급) ※계좌에 압류, 가압류, 집권설정 등 압류 관련 사유 발생 시 이자 지급 제한 ※실세금리 정기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은행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중소기업금융채권은 원금·이자에 대해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개별 상품에 관하여 자세한 규정은 거래 영업점 또는 IBK고객센터(☎1566-2566)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IBK기업은행은 금품·향응을 받지 않습니다. 윤리경영 위반 사실이 발생 시 개선이 필요한 경우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 (☎02-729-7490, e-mail: ibketh@ibk.co.kr) ※금융상품 관련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일반금융소비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4항에 따라 IBK기업은행으로부터 충분히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조코비치, 연말 세계 랭킹 1위 확정...통산 400주간 1위 기록

노바크 조코비치(1위·세르비아)가 올해 연말 세계 랭킹 1위를 확정하며 사상 최초로 세계 1위에 400주간 머무는 기록을 세우게 됐다.

조코비치는 13일(한국시간) 이탈리아 토리노에서 열린 남자프로테니스(ATP) 투어 니토 ATP 파이널스 대회 첫날 조별리그 그린 그룹 1차전에서 훌게르 루네(10위·덴마크)를 3시간 5분 접전 끝에 2-1(7-6(7-4) 6-7(1-7) 6-3)로 제압했다.

현직 시간 자정이 넘어 경기가 끝났을 정도의 혈투였다. 이로써 조코비치는 시즌 최종전인 이번 대회 결과와 관계 없이 올해 연말까지 세계 랭킹 1위를 지키게 됐다.

테니스 세계 랭킹은 최근 1년간 성적을 토대로 정해지기 때문에 연말 세계 1위는 그해에 가장 좋은 성적을 낸 선수라는 의미가 된다.

조코비치가 연말 세계 1위를 차지한 것은 2011년, 2012년, 2014년, 2015년, 2018년, 2020년, 2021년에 이어 올해가 8번째다.



노바크 조코비치

지난해에는 카를로스 알카라스(2위·스페인)가 연말 1위였다. 이는 ATP 투어 연말 세계 1위 최다 기록으로 조코비치 다음으로는 피트 샘프러스(은퇴·미국)가 6회를 기록했다.

로저 페더러(은퇴·스위스)와 라파엘 나달(스페인)은 지미 코너스(은퇴·미국)와 함께 다섯 차례 연말 세계 1위를 달성했다.

조코비치는 또 통산 400주간 세계 1위를 지키는 최초 기록도 눈앞에 뒀다.

조코비치는 개인 통산 399주간 세계 1위를 유지했고 다음 주가 되면 세계 1위를 지킨 기간을 400주로 늘린다. 이 부문 2위는 310주의 페더러다.

ATP 파이널스는 세계 랭킹 상위 8명이 나와 겨루는 시즌 최종전이다.

조코비치와 루네 외에 안니크 신네르(4위·이탈리아)와 스테파노스 차치파소스(6위·그리스)가 그린 그룹에 편성됐다. 레드 그룹은 알카라스와 다닐 메드베데프(3위), 안드레이 루블료프(5위·이상 러시아), 알렉산더 츠베레프(8위·독일)다.

세계 랭킹 7위 카스페르 루드(노르웨이)와 9위 테일러 프리츠(미국)가 빠지면서 10위 루네까지 출전 기회가 돌아갔다.

/ 최준용 기자



17일 경기도 수원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축구대표팀 한국과 베트남의 친선경기. 클린스만 감독이 경기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클린스만 “다음 경기가 가장 어려운 범싱가포르 쉽지 않아”

“늘 ‘다음 경기가 가장 어렵습니다. 싱가포르, 중국과 경기도 쉽지 않을 겁니다.”

2026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2차 예선을 시작하는 한국 축구 대표팀의 워르겐 클린스만 감독은 약팀을 상대로도 전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클린스만 감독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싱가포르, 중국과의 월드컵 2차 예선 2경기에 대비한 소집훈련을 앞두고 기자회견을 했다.

클린스만은 9월 두 번째 A매치인 사우디아라비아전에서 고대하던 첫 승리(1-0)를 거뒀고, 10월에는 튀니지(4-0), 베트남(6-0)을 상대로 연속 행진을 이어갔다. 북중미 월드컵으로 향하는 장도의 첫 관문에서 맞닥뜨리는 싱가포르(155위)와 중국(79위)은 한국(24위)보다 국제축구연맹(FIFA) 랭킹에서 많이 뒤처지는 상대들이다.

하지만 클린스만 감독은 아시아축구연맹(AFC) 챔피언스리그(ACL) 조별리그에서 한국의 강팀들이 싱가포르의 라이언 시티 등 동남아 팀들에게 패배한 결과를 언급하면서 상대를 쉽게 보지 않고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클린스만 감독은 중국에 대해 “거친 경기가 예상된다”며 경계했고 싱가포르에 대해서는 “(전북 현대를 상대한) 라이언 시티에 싱가포르 국가대표가 8-9명 정도 있었는데 능력 있는 선수들이었다”고 평가했다. 클린스만 감독은 이강인(파리 생제르맹), 정우영(슈투트가르트) 등 유럽에서 뛰는 어린 선수들이 자신의 부임 뒤 많

이 성장했다고 자평하기도 했다.

클린스만 감독은 “어린 선수들, 특히 공격수들에게 더 용기를 가지고 과감하게 저돌적으로 움직이라고 요구한다”면서 “이들이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 오승환 기자

‘마라톤 수영’ 박재훈, 홍콩 초청대회 남자 1km 3위



박재훈이 2023 뉴질랜드 하버레이스 오픈워터스위밍(마라톤 수영) 남자 1km 경기에서 3위에 올랐다.

박재훈은 12일 홍콩 침사추이 인

근에서 열린 대회에 출전해 28분12초9로 약 300명 중 3위를 차지했다. 가이키 후루하타(일본)가 28분3초9로 우승했고, 조정지(대만)가 28분4초로 2위를 했다.

올림픽과 아시아게임 오픈워터스위밍은 정식 종목은 10km다. 박재훈은 지난달 7일 열린 2022 항저우 아시아게임에서 1시간56분00초3으로 3위에 올랐다.

오픈워터스위밍은 항저우 대회에서 첫 아시아게임 정식 종목이 됐고, 박재훈은 한국인 첫 오픈워터스위밍 아시아게임 메달리스트로 기록됐다.

/ 황승길 기자

유해란, LPGA 투어 신인왕 등극...한국 선수 4년만·14번째



2020년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신인상 수상자를 정하지 않았고, 2021년 페티 타와타나깃, 지난해 아타야 티피꾼 등 태국 선수들이 최근 신인상을 휩쓸었다.

한국 선수의 역대 신인상은 1998년 박세리를 시작으로 1999년 김미현, 2001년 한희원, 2004년 안시현, 2006년 이선화, 2009년 신지애, 2011년 서희정, 2012년 유소연, 2015년 김세영, 2016년 전인지, 2017년 박성현, 2018년 고진영, 2019년 이정은에 이어 이번 유해란이 14번째다. 이번 안니카 드리본 대회 우승은 릴리아 부(미국)가 차지했다. 부는 최종 합계 19언더파 261타를 기록, 공동 2위 선수들을 3타 차로 따돌렸다.

부는 올해 메이저 대회인 세브론 챔피언십과 AIG 여자오픈을 포함해 4승을 거뒀다. 이 대회 우승 상금은 48만7천500 달러(약 6억4천만원)다.

세계 랭킹 2위였던 부는 이번 우승으로 14일 발표되는 세계 랭킹에서 1위 인뤄닝(중국)을 제치고 세계 1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올해의 선수 부문과 상금(325만 2천303 달러) 부문에서도 1위에 올랐다.

교포 선수 엘리슨 리(미국)가 16언더파 264타를 기록해 아시아 무노스(스페인)와 함께 공동 2위에 올랐다.

양희영은 15언더파 265타를 기록해 단독 4위로 대회를 마쳤다. 고진영이 7언더파 273타를 치고 리디아 고(뉴질랜드) 등과 함께 공동 31위에 올랐다. LPGA 투어 시즌 최종전은 16일부터 나흘간 미국 플로리다주 네이플스에서 열리는 CME그룹 투어 챔피언십(총상금 700만 달러)이다.

/ 이현지 기자



펜싱 여자 사브르 대표팀, 새 시즌 첫 월드컵 단체전 우승

한국 펜싱 여자 사브르 대표팀이 새로운 시즌 첫 월드컵에서 단체전 우승을 차지했다. 서지연(안산시청), 윤소연(대전광역시청), 전하영(서울특별시청), 최세빈(전남도청)으로 구성된 여자 사브르 대표팀은 12일(현지시간) 알제리 알제에서 열린 국제펜싱연맹(FIE) 월드컵 단체전에서 정상에 올랐다.

여자 사브르 대표팀은 항저우 아시안게임 개인전 금메달리스트인 간판 윤지수(서울특별시청)가 부상 회복을 위해 빠진 가운데서도 내년 파리 올림픽으로 향하는 2023-2024시즌 첫 국제대회에서 단체전 우승을 일궜다.

이날 한국 여자 사브르 대표팀은 16강에서 루마니아를 45-28, 8강에선 일본을 45-44로 꺾었고, 준결승에선 헝가리를 45-27로 제압했다. 결승에선 프랑스를 45-43으로 따돌렸다.

이탈리아 레나노에서 열린 여자 에페 월드컵에서는 송세라(부산광역시청), 강영미(광주광역시 서구청), 이해인(강원도청), 유단우(전남도청)가 단체전에서 우크라이나에 이어 준우승했다.

/ 소현성 기자

안니카 대회 공동 12위...우승은 릴리아 부

유해란이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2023시즌 신인왕에 올랐다. 유해란은 13일(한국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벨에어의 펠리컨 골프클럽(파70·6천268야드)에서 열린 LPGA 투어 안니카 드리본(총상금 325만 달러) 대회 마지막 날 4라운드에서 버디 6개와 보기 1개로 5언더파 65타를 쳤다. 최종 합계 12언더파 268타를 기록한 유해란은 공동 12위로 대회를 마쳤다.

이 대회까지 2023시즌 2개 대회가 남았는데, 신인왕 레이스 2위인 그레이스 김(호주)이 2개 대회에서 모두 우승해야 1위 유해란을 제칠 수 있는 상황이었다.

그레이스 김이 이번 대회에서 9언더파 271타로 공동 23위에 오르면서 남은 시즌 최종전 결과와 관계 없이 유해란의 신인상 수상이 확정됐다.

LPGA 투어에서 한국 선수가 신인상을 받은 것은 2019년 이정은 이후 올해 유해란이 4년 만이다.

꿈이 깃든 기술력에 **DREAM**

기술보증기금이 **희망을**

중소벤처기업부 지정 개방형 기술혁신 전담 기관

기업에서 꼭 필요한 기술을 이전받고 사업화에 이르기까지
중소벤처 개방형 기술혁신의 모든 과정을 기보가 지원합니다.

스마트 테크브릿지 <http://tb.kibo.or.kr>

기술기업의 start up부터 scale up까지 함께하는 혁신성장플랫폼
기술혁신형 기업에 기술보증 및 기술평가를 중점지원하여 기업의 기술경쟁력을 제고하고 나아가 우리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동력 창출의 임무를 담당하고 있는 기술금융 전문지원기관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

기술보증기금

대규모 전투로 막 올린 대하사극 '고려거란전쟁' 5%대 시청률

여요전쟁을 배경으로 한 김동준, 최수종 주연의 대하사극 드라마 '고려거란전쟁'이 5%대 시청률로 출발했다.

12일 시청률 조사회사 닐슨코리아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 25분 KBS 2TV에서 방송한 '고려거란전쟁'의 시청률은 5.5%로 조사됐다.

첫 방송은 거란(요나라)과 고려의 전투 장면으로 시작했다. 고려군이 바뀌기 달린 거대한 방패 역할을 하는 '검차'를 이용해 방어선을 구축하고 거란의 공격을 힘겹게 막아내는 모습이 담겼다.

1차 방어막이 뚫리자 2차 방어막을 지키던 병사들이 겁에 질려 검차를 버려두고 도망치려 하고, 이에 강감찬(최수종)이 직접 2차 방어막으로 가 검차를 지키다. 이 모습에 병사들은 사기를 되찾고 다시 전선을 지켰다.

이어 장면이 전환되며 전쟁이 일어나기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고려 황실의 이야기를 다뤘다.



목종(백성현)은 동성 연인인 유행간(이풍운)에게 빠져 국사를 돌보지 않으며 자녀도 없는 상태이고, 천주태후(이민영)는 자신과 김치양(공정환)의 아들을 태자로 세우겠다고 공언한다.

이에 목종은 왕씨가 아닌 김씨가 황제가 될 수 없다며 어린 시절 궁 밖으로 쫓겨나 절에서 생활하고 있는 왕가의 후손 대량원군(김동준)을 황실로 불러들이겠다고 맞섰다.

천주태후와 김치양은 대량원군을 제거하기 위해 사람을 보내고, 위협을 느낀 대량원군이 절에 마련된 비밀 장소에 숨어 있다가 발각되며 위기에 처하면서 1회가 마무리됐다.

'고려거란전쟁'은 첫 전투 장면에서 웅장한 규모와 세련된 카메라 움직임이 돋보였다. 검차 아래로 침투해 공격하는 거

란군 병사의 시선은 1인칭으로 카메라에 담는 등 생생한 연출도 선보였다.

역사적으로도 기록을 찾아볼 수 있는 목종의 동성애를 과감하게 표현하고 기존의 대하사극보다 한결 가벼워진 대사도 신선한 느낌을 줬다.

다만 일부 시청자는 온라인 커뮤니티와 포털 게시판 등에서 '고려 병사들의 발음이 불분명해 무슨 말인지 이해하기 어렵다', '일부 배우의 연기가 아쉽다'고 지적했다.

같은 날 오후 9시 50분 방송한 남궁민 주연의 MBC 퓨전사극 '연인'은 11.6%의 시청률을 기록해 동시간대 드라마 가운데 가장 높았다. 오후 9시 20분에 방송해 '고려거란전쟁'과 시간이 가장 많이 겹치는 tvN '무인도의 디바'는 5.4%를 기록해 직전 회차(8.0%)보다 낮아졌다.

오후 10시에 방송한 SBS '7인의 탈출'은 5.2%의 시청률로 자체 최저치를 기록했다. / 김성윤 기자



'개그콘서트'

"마침표 아닌 쉼표였다" 개그콘서트, 4%대 시청률로 복귀

긴 공백을 깨고 돌아온 코미디 프로그램 '개그콘서트'가 4%대 시청률로 출발했다. 13일 시청률 조사회사 닐슨코리아에 따르면 KBS 2TV에서 전날 오후 10시 40분 방송된 '개그콘서트' 1천51회는 시청률 4.7%를 기록했다.

이는 2020년 6월 26일 방송한 1천50회가 기록했던 시청률 3.0%보다 높은 수치다. 돌아온 '개그콘서트'를 향한 시청자의 궁금증이 반영된 결과다.

이날 방송은 기약 없이 중단을 결정했던 3년여 전 무대에 선 출연진이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편집해 내보내는 것으로 시작했다.

이어 '하지만 우리가 찍은 건 마침표가 아닌 쉼표', '그리고 3년 4개월 하고도 20일'이라는 자막과 함께 무대의 막이 올랐다.

가장 먼저 선보인 무대는 '개그콘서트'의 장수 코너인 '봉숭아 학당'이었다. 과거와 마찬가지로 교실로 꾸며진 무대에서 코미디언 김민호가 선생님 역할을 맡고

다른 코미디언들이 차례로 준비한 유머를 펼쳤다.

저출생으로 전교생이 두 명뿐인 '금쪽 유치원', 외국인 며느리와 시어머니의 고부갈등을 그린 '니통의 인간극장', 결혼을 장려하면서 도리어 결혼하기 어려운 현실을 풍자하는 '대한결혼만세' 등 사회상을 반영한 코너들이 무대에 올랐다.

소개팅에서 벌어지는 일을 다룬 '데프콘 어때요'와 드라마와 현실을 비교하는 '팩트라마' 등 기시감이 있는 코너들도 있었다.

과거 '개그콘서트'의 인기를 이끌었던 김민호, 정병균은 코너의 전면에 나서기 보다 진행자 내지 보조자 역할을 맡는 모습을 보였고, 대부분의 코너가 신인 위주로 짜였다.

마지막 코너인 '소통왕 말자 할때'에는 보이그룹 제로베이스원이 특별출연했다. 관객석에 앉아있던 제로베이스원은 무대에 올라 안무를 선보였다.

/ 정수경 기자

'더 마블스' 美 개봉일 수입 284억원 "마블 사상 최저 성적"



~687억원)의 수입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마블 스튜디오에서 이전까지 저조한 성적을 낸 영화들보다 더 낮은 수준이라고 미 매체들은 전했다.

이전까지 마블 영화 중 개봉 첫 주 최악의 성적을 기록한 '인크레더블 헐크'(2008)는 북미 내 첫 주 수입이 5천540만달러(약 732억원)였다. 다만 당시 마블은 디즈니에 인수되기 전이어서 유니버설 픽처스가 이 영화를 배급했다. 이후 2015년 개봉한 디즈니 마블의 '앤트맨'은 북미에서 첫 주 5천720만달러(약 755억원)의 수입을 기록했다.

데드라인은 '더 마블스'의 개봉 첫 주 해외 수입 예상치도 6천만달러대로 낮아졌다고 전하면서 이에 따라 첫 주 전 세계 흥행 수입이 1억1천만~1억1천500만달러(약 1천453억~1천519억원)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 한지해 기자

미국 영화 흥행수입 집계사이트 박스오피스 모조에 따르면 '더 마블스'는 북미 지역에서 전날 개봉해 2천150만달러(약 284억원)의 티켓 수입을 올렸다.

업계에서는 이런 첫날 성적을 토대로 이 영화가 일요일(12일)까지 사흘간 북미에서 4천700만~5천200만달러(약 621억



레드벨벳, 정규 3집 '칠 킬' 발표...변칙적인 곡 전개 돋보여

걸그룹 레드벨벳이 13일 정규 3집 '칠 킬'(Chill Kill)을 발표했다.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가 밝혔다.

'칠 킬'에는 동명의 타이틀곡을 비롯해 총 10곡이 담겼다.

타이틀곡 '칠 킬'은 과감한 베이스와 스트링 사운드, 화려하고 몽환적인 신시사이저와 벨 사운드가 어우러진 노래로, 극적이고 변칙적인 전개가 특징이다. 연애 서사를 드라마틱하게 표현

한 가사와 '맑은 비극'을 묘사한 감정을 따라 변화하는 보컬이 인상적이다.

레드벨벳 멤버들은 타이틀곡 뮤직비디오에서 각기 다른 성격의 자매를 연기해 몰입감을 극대화했다.

레드벨벳은 이날 오후 5시부터 유튜브, 틱톡, 위버스, 아이돌플러스를 통해 카운트다운 라이브도 열고 팬들을 만난다. / 권유희 기자

경찰연합신문 www.koreapolicenews.com

회장·발행인 송원기 주 소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여의도동) 175
 편집인 최영민 대표전화 1533-1545 / 팩스 : 0508-9192546
 인쇄소 아이피디 E-mail unionilbo12@naver.com
 청소년보호책임자 이민영 등록번호 서울, 아53015 서울, 가50142

구독 광고 문의 : 1533-1545 / 구독료 : 월 15,000원, 1부 800원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현대백화점 패밀리워크 THE HYUNDAI

23.11.10 - 11.26

코리아세일페스타와 현대백화점 그룹이 함께하는 쇼핑 축제

백화점과 면세점부터 한섬, 리바트, 지누스까지 생활의 모든 순간에 자리하는 현대백화점 그룹이 함께 쇼핑 축제를 엽니다. 현대백화점 그룹사 어디서든 사용할 수 있는 H-Super Pass부터 꼭 갖고 싶은 경품을 모은 래플 이벤트까지, 당신을 위해 특별히 준비한 이벤트와 선물을 지금 확인하세요.

현대백화점그룹 통합멤버십 H.point 현대백화점 현대아울렛 현대백화점명세점 더현대닷컴 현대홈쇼핑 현대+몰 현대그린푸드 한섬 더한섬닷컴 현대리바트 현대L&C 지누스 현대렌탈케어 현대드림투어 현대어린이책이술관

자세히 보기

SAMSUNG



자세한 내용은
삼성닷컴에서



World EXPO 2030
BUSAN, KOREA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에 응원합니다

※ 상기 이미지는 이해를 위해 연출된 화면이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Galaxy Watch6 Classic Golf Edition